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79호
2025년 12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contact@snuaa.org



남가주 관악세대 갈라에 참가한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합과 우의를 다졌다. 지난 11월 2일 부에나파크의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갈라에는 1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남가주 관악세대 100여 명, 첫 갈라로 마음을 잇다

1975~2016 학번 ‘관악 네트워크’ 출발

“나에게 넌, 우리 사이 정들자” 모토 선포

남가주 관악세대 동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단합과 우의를 다졌다. 지난 11월 2일(일), 부에나파크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관악세대 갈라’에는 서울대 종합화 원년인 1975년 이후 입학한 동문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학번은 달라도 가슴 속에는 ‘관악’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했던 시간과 자부심이 하나의 울림으로 퍼져나갔다.

채규환(법대 69) 남가주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새로운 여정을 여는 관악세대 동문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관악세대가 동창회를 더 크고 의미 있는 공동체로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행사를 기획·주관한 양수진(간호대 80) 차기 총동창회장은 내년도 동창회의 모토를 ‘나에게 넌, 우리 사이 정들자’(You to Me, Let’s Get Together)로 발표해 큰 환호를 받았다. 그는 “동창회는 나만의 자리가 아니라, 너를 위해 나의 자리를 채워 함께 ‘우리’가 되는 공동체여야 한다”며 “이제 동창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

해 공감함을 이끌어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상견례 시간이었다. 대부분 초면인 동문들이 돌아가며 자신을 소개하는 동안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수의대 16학번 이태경, 선배님들께 인사드립니다”라는 소개가 이어지자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그 순간 모두가 세대를 넘어 ‘한 가족’임을 실감했다.

박운섭(공대 76) 동문은 “공대 동창회

에서는 늘 막내였는데 오늘 90년대와 2000년대 후배들을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전했다.

2부에서는 원영배(미대 73)·김자성(의대 79) 동문의 듀엣 무대가 펼쳐졌다. 고(故) 김민기(미대 69) 동문의 노래들을 기타 선율 위에 얹어 부르자 1980년대의 청춘과 감성이 행사장을 따뜻하게 채웠다.

갈라는 오후 5시에 시작해 밤 10시까지 이어졌으나 자리를 뜨는 이는 거의 없었다. 일요일 저녁이라는 현실적 부담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한기 때문이다.

사회는 신경섭(자연대 91) 동문이 맡아 매끄럽게 진행했으며, 여흥은 송미

선(음대 88)·고민석(농생대 88) 동문이 유쾌하게 이끌어 웃음이 이어졌다. 마지막 인사에서 양수진 차기 회장은 “아직도 동창회의 존재를 모르는 동문들이 많다”며 “좋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주변에 널리 알려, 내년 2월 총회에는 더 많은 관악세대 동문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에게 넌, 우리 사이 정들자.” 그날 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세대를 넘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동문’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어우러진 잊지 못할 밤. 남가주 관악세대 갈라는 ‘우리’라는 단어가 지닌 아름다움을 다시금 일깨워준 뜻깊은 순간이었다.



(맨 왼쪽부터) 남가주 관악세대 갈라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최연소 이태경(수의대 16) 동문. 갈라의 하이라이트인 원영배(왼쪽), 김자성 동문의 듀엣. 갈라를 기획 주관한 양수진 차기회장과 신경섭 차기 총무가 내년도 총동창회의 모토인 ‘우리 사이 정들자’를 외치며 단합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Tel: 651-308-0796 | Email: contact@snuaa.org

동창회보 구독자님들께서 동문 지인 중 아직 동창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께 다음 달 동창회보를 보내드리고 싶은 경우,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메일(contact@snuaa.org) 또는 미주동창회 주소로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방에서 골프장까지 도전과 성공을 향한 여정

김병순 뉴욕 동창회장이 만난 이강홍(상대 60) 회장

이강홍(상대 60) 회장은 뉴욕 인근에서 최고 수준의 프라이빗 골프 코스 중 하나인 맨해튼 우즈 골프 클럽(Manhattan Woods Golf Club)을 직접 지어 20년 넘게 운영했다. 이 골프 코스는 이강홍 회

장의 의뢰를 받아 세계적인 골프 레전드이자 골프 코스 설계 명장인 개리 플레이어(Gary Player)가 디자인했다. 이강홍 회장은 앞서 한국에서는 가방제조수출업체인 크로바상사를 창립해 한국 가방의 미국 수출시장 개척에 전기를 마련했으며 전세계 유명 브랜드인 샘소나이트, 런던포그와 서독의 파일사 등과 OEM 공급계약을 체결해 한국 경제 산업 발전에 헌신했다. 현재 뉴욕 지부 동문으로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이기도 한 이강홍 동문을 김병순(사회대 82) 뉴욕 동창회 회장이 만났다.

스탠포드로 가는 비행기값 403달러를 벌기 위해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진학 후 졸업하면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로 유학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입할 403달러가 없어 난관에 봉착하였다.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형님이 집안을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비행기표 비용을 형님에게 부탁한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해 나의 힘으로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Time지와 Reader's Digest를 읽으며 독학으로 터득한 영어 실력으로 미국대사관 참사관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 당시 월남전에 참전한 미군 병사들을 본국으로 운반하는 비행기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인이 가기 매우 힘든 곳이라 특별한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일본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해운회사에 입사하여 일정 기간 근무 후 해외로 나갈 기회를 얻어 보자는 심산으로 극동해운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시 서울대학교에서는 지원자가 적었고 연대·고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던 상황이었으나, 내가 지원했을 때는 1명을 채용하는 경우였는데 Maryland 대학교 청강생 경험 등에 힘입어 운 좋게 합격하게 되었다.

29세 최연소 전무: 극동해운과 샘소나이트 신화

극동해운의 소유주였던 남궁연 사장님은 자유당 시절 한국에서 상당한 재력가로, 해운뿐 아니라 철강업에도 종사하였고 조선공사를 인수하여 공사내 철강 부문으로 사업적 시너지를 이끌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심지어 미국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

하였고 비록 실패하였지만 스케일이 큰 사업을 하던 기업가였다.

극동해운에서 남궁연 사장님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정치권 유력 인사로비 및 외국 사절이나 유명 기업인들 접대를 위하여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이던 청와대 비원을 구경시켜 주는 일까지 하는 등 매우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사장님의 신망을 얻어 29세에 전무 직함을 얻을 수 있었다.

미국의 Samsonite에서 동양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Licensee Manufacturer를 영입하려 한다는 정보를 얻고, 과감히 지금까지 누리던 여러 혜택과 지위를 내려놓고 그 일에 도전하기로 하였다. 샘소나이트 현지 공장을 서울에서 시작하여 스리랑카, 아일랜드로 확대해 건설하였는데, 그 모든 공장을 짓고 영입이 본국도에 오르기까지 불철주야로 일하였고 나중에는 1년의 절반 정도를 외국에서 생활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스리랑카 지사를 건설했을 때에는 보안 등 여러 이슈로 싱가포르에 거주하게 되었다. 싱가포르에 살면서 토속 말레이계 국왕의 존재와 인도계 대통령, 그리고 이광요 수상의 치적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다.

가족을 위한 도전: 맨해튼 우즈 골프 클럽

정신없이 일에만 몰두하고 있던 어느 날 작은아들의 한마디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러 나라를 오가며 하던 제조업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미국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Gary Player와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전 세계 430여 개의 골프장을 설계하였지만 세계 최대의 금융 중심지인 뉴욕 인근에는 자신의 작품이 없어 크게 아쉬워하던 터였기에 쉽게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비교적 쉽게 그의 디



이강홍 동문이 김병순 동문에게 도전과 성공의 신화를 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들려주고 있다.

자인 허락을 받아 Manhattan Woods Golf Club을 건축할 수 있었다.

1994년부터 대지 매입, 골프장 인허가(연방정부, 주정부, County, 지방정부 등 16개 부처의 인허가 필요) 등을 거쳐 1998년 9월 22일 Grand Opening을 할 수 있었다. 인허가를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한국과 달리 뇌물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어서 금전적 비용은 많이 들지 않았다.

골프장 운영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로고를 디자인하는 데 5개월이 걸렸고, 식당 메뉴를 만드는 과정에서 커피를 어떻게 혼합·제조할지 등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했다. 그 과정에서 설계자인 Gary Player가 자기 의견보다 나의 의견을 양보해 준 점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22년 동안 골프장을 운영한 뒤 두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으나 그들이 마다하여 2020년 제3자에게 매각하고, 현재는 Founder로서 평생 회원권만 보유하고 있어 다소 아쉬움이 남아있다.

건축과 명예: 삶의 궤적을 담은 공간들

나는 집을 직접 지어 보는 것을 좋아하여 여유 돈이 조금 생기면 여러 원천에서 영감을 얻어 다양한 형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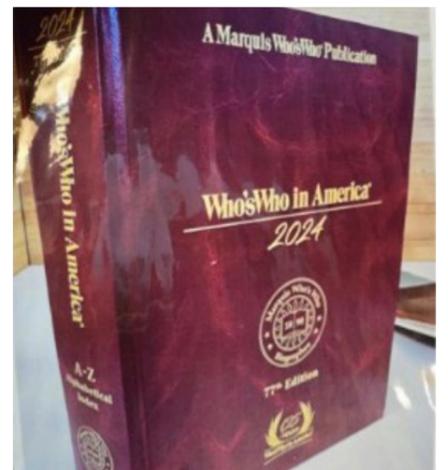
집을 지어 보았다. 한국 한남동 유엔 빌리지에 있는 나의 집은 건축가 김중업씨의 작품인데 독특하여 유명한 건축물이었다. 김중업 씨는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을 설계한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제자였는데, 한국적 색채를 담아 가벽돌로 건축하여 건축학도들에게도 유명하였다. 대우 자동차에서 신차가 나왔을 때 그 집을 배경으로 선전 화보를 찍었고, 내가 매각한 이후 외국 유명 회사의 한국 지점장들이 살기도 했다.

샘소나이트 한국지사의 근로자 기숙사 건물도 당시 신식으로, 근로자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 지은 건물로 박정희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Manhattan Woods Golf Club 바로 옆에 대저택을 지었다가 Sotheby 경매장을 통하여 매각되는 등 유명한 건축물을 지어 본 것은 나에게 큰 긍지가 되었다. 성수동에 샘소나이트 본사 건물을 지을 때 영국에서 공수해 온 시계탑은 신혼부부들의 포토 스폿(Photo Spot)으로 활용되고 있다.

Who's Who in the World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이름이 오른 것을 보고, Who's Who in America에서도 나의 탄생과 여러 사업상 이력을 소개하는 것을 보며 나 스스로를 칭찬하게 된다.



(왼쪽부터) 자신이 지은 서울 성수동의 샘소나이트 본사 건물 앞에 서있는 이강홍 동문. 이 동문이 개리 플레이어에게 디자인을 의뢰해 건설한 맨해튼 우즈 골프 클럽. 이강홍 동문은 Who's Who in the World 뿐 아니라 2024년도 Who's Who in America에도 이름을 올렸다.



(왼쪽부터) 자신이 지은 서울 성수동의 샘소나이트 본사 건물 앞에 서있는 이강홍 동문. 이 동문이 개리 플레이어에게 디자인을 의뢰해 건설한 맨해튼 우즈 골프 클럽. 이강홍 동문은 Who's Who in the World 뿐 아니라 2024년도 Who's Who in America에도 이름을 올렸다.

“우리 지부는...” 제2차 지부 회장 줌 미팅

주소록 관리 현황 및 소통 방식 등 논의
10만 달러 이상 장학기금 보유 지부 3곳

미주 각 지부 서울대 동창회장이 참여하는 제2차 지부 회장 줌 미팅이 지난 11월 19일 열려, 각 지부의 주소록 관리 현황과 동문들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제18대 미주동창회의 문성인(공대 88) 지부 지원 담당 고문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을 비롯해 뉴욕의 김병순 회장, 워싱턴 DC의 남욱현 회장, 필라델피아의 김영석 회장, 뉴잉글랜드의 원덕수 회장, 조지아주의 최화진 회장, 하틀랜드의 이주현 회장과 박상근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 한홍택 장학위원장, 임동근 총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문성인 고문은 “미주동창회에서 운영하는 SNU 포럼과 창업 네트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메일을 통해 미주 전 지역 동문들에게 알리고 싶다”며 각 지부의 주소록 관리 방식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제안했다.

대부분 지부는 공지를 이메일과 카카오톡 단체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각 지부는 공통적으로 젊은 동문들의 주소록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토론했다.

뉴잉글랜드 지부는 253명의 명부를 보유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 300명 이상이 별도의 카톡방을 운영하며 기존 동창회와 분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 지부도 젊은 동문들의 주소를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문회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동문들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장학사업과 관련해서는 10만 달러 이상의 장학기금을 보유한 지부가 세 곳이었다. 뉴욕 지부는 1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CD로 보관하고, 해당 연도 장학금은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뉴잉글랜드 지부는 18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를 통해 투자하여 약 1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해 1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카고 지부도 주식시장 활황 덕분에



미주 각 지부 동창회장들이 지난 11월19일 줌으로 만나 미주동창회 지부 회장 모임을 하고 있다.

에 두 개 ETF로 분산 예치된 장학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익금으로 올해 10명 정도를 선발해 3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워싱턴 DC 지부는 4년 전 한미장학재단에 6만 달러를 기부해 서울대 계좌 두 개를 만들어 지정 장학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와 별도로 매해 약 5000달러를 모금해 동문 자녀와 대학원 유학생을 대상으로 5~6

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근 차기 회장은 “한미장학재단은 전문적인 CFP가 관리해 자산을 불리기 때문에 매해 장학금을 지급하면서도 지난 4년 동안 6만 달러가 7만 5,000달러로 늘었다”며 “전문기관에 맡기면 동창회 임원진의 수고도 덜 수 있으니, 일정 금액이 모이면 지역의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량국 동문이 전하는 창업네트워크 소식

수학 영재 김도균(수학 18) 동문 창업 기업 맞춤형 AI 솔루션 서비스 ‘달파’

지난 11월 11일, 서울대미주동문회 창업네트워크(기업넷)의 정기 모임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모임에서는 한국 AI 스타트업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동문 기업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김도균 동문(수학 18)이 이끄는 회사 달파(Dalpa)는 상거래, 마케팅, 제조 분야에서 구독 기반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AI 스타트업 중 하나다. 김 동문은 국내 유수 벤처캐피탈로부터 1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미 200개 이상의 기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달파의 성장 과정을 소개했다.

달파의 핵심 경쟁력은 100여 개의 오픈소스 AI 기술을 레고 조립하듯 엮어 기업 맞춤형 AI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김 동문은 창업 이래 2000개 이상의 기업과 미팅을 통해 파악한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각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에서 ‘반복적이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작업을 AI로 해결하는 접근법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대흥기획과 협업해 선보인 ‘AIMS’ 플랫폼은 리서치부터 프로모션 전략 도출, 집행, 결과 분석까지 마케팅 전 과정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동문은 이제 북미와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글

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달파의 역사와 AI 솔루션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 기업별 맞춤화 프로세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나눴다. 특히 한국과 미국 시장의 차이에 달파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올림픽야드 메달리스트 출신으로 2023년 네 명의 동기들과 달파를 공동 창업한 김도균 동문은 포브스코리아 ‘30세 미만 30인’에 선정되는 등 젊은 창업가로서 주목받고 있다.

기업넷은 이처럼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동문 기업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업과 투자에 관심 있는 동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문의:
rkim@oakbioinformatics.com



김도균 달파대표.

미주동창회 장학생 지원 마감 지원자 24명 중 여성이 18명

12월말까지 선발 완료

지난 10월 31일 마감된 서울대 미주동창회 장학생 프로그램(2026 SNU-AA-USA Scholarship)에 모두 24명이 지원했다. 미주동창회는 신청자 가운데 10명을 선정해 내년 여름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하계강좌(SNU ISP)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주동창회 장학생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SNU ISP에서 공부할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지원자는 대폭 줄었다. 2024년 실시된 제2회 장학생 프로그램에는 모두 110명이 지원해 11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장학금은 예년과 같이 1인당 1만 달러이지만, 장학생에게 1만 달러를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미주동창회가 서울대에 직접 SNU ISP의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약 5,000달러에 달하는 잔여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홍택(공대 60-UCLA 석좌교수) 장학위원장은 “신청자 수는 줄었지만 성적과 추천서, 에세이를 보니 뛰어난 학생들이 지원했다”며 장학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장학생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학위원으로는 각 지부를 대표해

뉴욕 신응남(농대 70), 뉴잉글랜드 김광수(자연대 73), 시카고 이준수(공대 76), 휴스턴 최인숙(약대 76), 북가주 임준원(공대 77), 워싱턴주 임현민(공대 84), 조지아주 최화진(음대 85), 미네소타 문성인(공대 88) 동문이 봉사하고 있다.

지원자는 올해도 여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전에도 여학생 비율은 60%가 넘었는데, 올해에는 24명 지원자 중 남학생 6명, 여학생 18명으로 무려 3배가량 더 많이 지원했다.

한홍택 장학위원장은 “한국에 가서 공부(5주 과정)하는 것에 여학생들의 관심이 훨씬 더 높았다”면서 “요즘 K-컬처의 위상이 대단해서인지 영화 전공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10명이 지원했는데 UC 버클리가 3명, USC 2명, UC 데이비스, UC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아츠 인스티튜트, 아주사 퍼시픽대(Azusa Pacific University) 학생이 1명씩 있었다.

동부에서는 프린스턴 대학, 보스턴 대학, 브라운 대학,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 카네기 멜런 대학, 드렉셀 대학, 콜게이트 대학, 컬럼비아 대학 학생이 지원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노스웨스턴 대학과 UI 어바나-삼페인, 텍사스 A&M 대학교와 UT 오스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학생도 지원했다.

임천빈 동문, 주니어 어치브먼트 평생공로상 수상

지역사회 공헌 활동 · 청소년의 롤모델 샌디에고 비즈니스 명예의 전당 헌액

남가주 샌디에고의 임천빈(문리대 61) 동문이 사회공헌활동과 청소년의 롤 모델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주니어 어치브먼트(Junior Achievement)’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1919년 창립된 주니어 어치브먼트는 청소년의 경제교육과 자립심 함양을 돕는 글로벌 비영리단체로, 샌디에고 카운티 지부는 1950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왔다.

올해는 임 동문을 비롯해 셸리 웨버(캘리포니아주 총무처장관), 잭 레이먼드(레이먼드 컴퍼니 회장), 달린 쉐리(쉐리 재단 회장) 등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샌디에고 비즈니스 명예의 전당에도 함께 헌액됐다.

임 동문은 특히 1985년 샌디에고와 멕시코 티화나의 비즈니스 리더들로

구성된 ‘마킬라도라(수출자유지역)’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일본과 한국을 방문, 삼성·LG 등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샌디에고 주립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맨손으로 미국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들어 성공신화를 일궈냈다. 2017년에는 미국 이민사회를 빛낸 인물에게 수여되는 ‘엘리스 아일랜드 명예훈장(Ellis Island Medal of Honor)’을 수상했다.

그의 자서전 ‘Will Work for Nothing’은 주류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돈 한 푼 없는 이민 초기, 그는 식당 문을 두드리며 “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일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던 일화를 솔직히 담았다. 이 책은 널리 읽히며 임 동문을 젊은 세대에게 영감



임천빈(맨 왼쪽) 동문이 셸리 웨버 캘리포니아주 총무처장관, 잭 레이먼드 레이먼드 컴퍼니 회장 등 다른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을 주는 동기부여 강연자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현재 샌디에고 한인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그는 ‘임채리티블 재단(Yim Charitable Foundation)’을 설

립해 지역사회 발전과 자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도 ‘기부의 큰손’으로 통하며, 꾸준한 나눔으로 존경받고 있다.

금난새 동문과 함께 하는 남가주 동창회 신년 음악회

‘마에스트로’ 금난새(음대 66) 동문이 지휘하는 신년 음악회가 내년 1월 4일(일) 오후 4시 UC 어바인 캠퍼스 내 바클레이 극장(Barclay Theater)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채규황)가 주관하고, 한국 총동창회(회장 김종섭)가 후원한다. 공연 수익금은 한인 커뮤니티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채규황(법대 69) 회장은 “서울대 동문 모임이 단순한 친목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음악회를 마련했

내년 1월 4일 UC 어바인 바클레이 극장 수익금은 한인 자폐 스펙트럼 가족 지원

다”며 “음악을 통해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꿈과 용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LA에서 4년째 음악회를 이어오고 있는 금난새 동문은 한국인 최초로 폰 카라얀 지휘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유럽에서 활약했으며, 귀국 후 KBS 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거쳐 현재 성남시립예술단 예술총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이번 무대에서 12명으로 구성

된 Korea-LA 챔버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 협연자로는 하모니카의 이윤석, 기타의 지익환 동문과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가 함께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로스앤젤레스 챔버 합창단(Los Angeles Chamber Choir)이 처음으로 참여해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연주하며 감동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한인커뮤니티재단(Korean American Foundation), 센

터 메디칼 그룹, PGA 웨스트, 어바인 한인문화센터, UC 어바인 등이 후원한다. 티켓은 무료이지만 기부를 환영한다.

한편 금난새 동문은 내년 3월 초,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초청으로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는 미주리 전함(USS Missouri)에서 한·미·일 3개국 합동 연주회를 기획하고 있다. 미주리함은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맥아더 장군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역사적 장소로, 한국전쟁에도 참전했으며 현재는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티켓 및 공연 문의: 이호중 (714-340-6756)



‘삶의 격랑을 넘어’ 정지선 동문(상대 58), 자서전 출판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지선동문.

북가주 정지선 동문(상대 58)이 자서전 ‘삶의 격랑을 넘어’를 펴내고 지난 9월27일 프리몬트의 뉴라이프 교회에서 약 20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정지선 동문은 이날 기념회에서 “비록 보잘 것 없는 과거였지만 여지껏 살아온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총과 붙들여주심으로 이어져 올 수 있었다”며 그 감사와 은혜를 책으로 적을 수밖에 없기에 책출판을 결심했다는 소회를 전했다.

정 동문의 자서전 ‘삶의 격랑을 넘어’(북산책 출판)는 250페이지

분량으로 총 75편의 자전적 에세이가 수록되어 있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동문들도 많이 참석해 성공과 어려움의 간극을 넘어 신앙과 성실로 이를 극복해온 정 동문에게 박수를 보냈다. 북가주 동창회장을 지낸 임승쾌(문리대 66) 동문

은 “무엇보다도 유머가 풍부했던 정 동문의 모습이 200여명 참석해 축하의 박수 속에서 여유

와 큰 위로를 줬다”며 “정 동문의 책이 삶을 헤쳐나가는 모든 이에게 지혜와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장우(문리대 72) 전 동창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출판 기념회

에 참석한 것을 보니 정 동문이 인생을 잘 사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대체불가한 인물로서 그 어떤 일을 맡아도 훌륭한 결과를 내온 정 동문의 업적을 추켜세웠다.

정 동문은 1939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서울 상대를 졸업하고 대한 방직 등에서 근무하다 1970년 미국 시카고로 이주했다.

청소업, 의류업 등 개인사업에 종사하다 80년대 초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 메트로폴리탄 등 여러 보험회사에서 일하다 은퇴했다. 세종 한국학교 설립, 샌프란시스코 매스코 코랄 단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회장 등 지역사회에 봉사한 공로로 2017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북가주 한인 합창단인 매스터 코랄 단장을 맡아 봉사한 것이 30여 년이며, 북가주 한인들의 오작교 역할을 자처하며 부인 최정자씨와 함께 결혼 상담소 두리하나도 20년째 운영하고 있다.

미네소타 음대서 광복 80주년 기념 성대한 음악회

지난 11월 24일, 미네소타 음악대학교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공연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악기와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은 어지휘 선생이 이끄는 미네소타 세종학교 사물놀이반의 신명 나는 ‘영남농악’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미주리-캔자스시티 음악원 테너 박석호 교수, 텍사스 A&M 대학교 소프라노 황지연 교수, 오클라호마 대학교 김현 교수가 함께 한국 가곡을 선보였다. 한국 가곡 이후에도 모든 무대가 한국 작곡가들의 훌륭한 작품으로 이어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우리 동문으로는 미네소타 음악대학교 오보에 교수 김수진(기악과 07학번), 세인트폴 챔버 오케스트라 고은애(기악과 08학번), 그리고 McPhil 음악센터와 장미 아트 이수진(국악과 96학번)이 뛰어난 연주로 무대를 빛냈다. 이외에도 미네소타 대학교 교수이자 세인트폴 챔버 오케스트라 수석 클라리넷 김상윤 교수, 미네소타 대학교 오페라 코치 이지원 박사가 함께했다.

이번 음악회의 피날레는 특별 편곡된 ‘아름다운 나라’로 장식되며 모든 연주자가 함께 연주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한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렇게 뜻깊은 연주를 올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광복은 우리 민족이 되찾은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며, 이를 음악으로 기념하고 후세와 함께 나눌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멀리 오신 교수님들께도, 미네소타에 계신 훌륭한 한국인 음악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24일 미네소타 음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에 출연한 연주자들이 공연을 마치고 청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수진 동문 총괄, 한인 음악인들 힘모아 한국 가곡 · 한국 작곡가 작품만 연주 소개 피날레 ‘아름다운 나라’, 객석에 깊은 울림

이번 음악회 총괄을 맡은 김수진 교수는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함께 모여 좋은 음악회를 열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이 벅찼다”며 “특히 한국 작곡가들의 곡만을 연주하며 새롭게 알게 된 숨은 명곡들을 소개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음악회는 미네소타 대학교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편곡과 리셉션은 김권식 박사(공대 61)의 후원으

로 준비되었다. 관객들은 공연 후 “심금을 울렸다”, “자신이 한국인이 아님에도 한국인의 긍지를 느껴 눈시울이 붉어졌다”, “프로그램 구성도 훌륭했고 의미가 깊었다”며 감동을 전했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인 음악가들의 역량과 단합, 그리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기억될 것이다. 글=김수진(음대 07)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를 총괄 준비한 미네소타 음대 김수진 교수.

‘이달의 재외동포’에 故 임덕상 교수

아이비리그 첫 한인 교수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재외동포청이 선정하는 11월 ‘이달의 재외동포’에 현대 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미주 한인 1세대 수학자 고 임덕상(1928~1982) 교수가 선정됐다.

개성에서 태어난 그는 1946년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했다. 한국 전쟁의 혼돈 상황과 개성여고 교사 근무 등으로 졸업은 8년이 지나야 했다. 이후 1955년 미국에 유학을 떠나며 수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방정식으로 나타난 기하학적 대상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인 대수기하학 분야에 광목할 만한 연구성과들을 발표했고, 이는 대수기하학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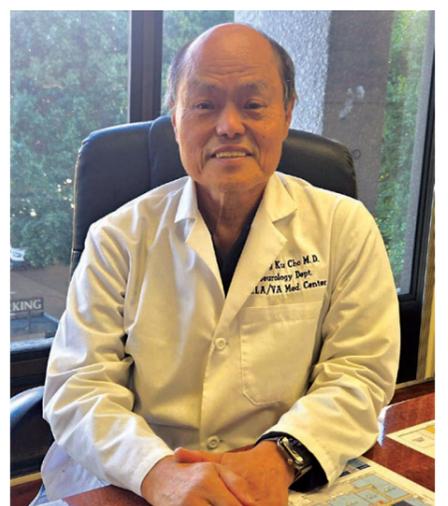
컬럼비아대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며 당시 신생 수학 분야인 대수적 K-이론을 형성하는 토대를 구축했고 1965년 펜실베이니아대학 수학과 교수로 임용되면서 아이비리그 첫 한국인 수학 교수가 됐다.

임 교수는 재미 한인사회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제4대 필라델피아 한인회장과 서재필 박사 기념비 건립위원장을 맡았고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초대 본부평의원 및 장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내 한인 과학·수학자들의 교류 촉진과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필라델피아 서울대 동창회도 창립해 초대 회장을 지냈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그의 공적을 기려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했다.

‘미국과 북한이 친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신경내과 전문의 조경구 동문 자서전 출간

의사·투자가 경험 담아



신경내과 전문의이자 부동산 투자가인 남가주의 조경구 동문(사진)이 최근 자서전 ‘미국과 북한이 친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를 출간했다.

조경구 박사는 이번 저서에서 미국에서 40여 년간 살아오며 의사로서, 투자자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깨달음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조 박사는 군 의관 복무를 마친 뒤 1983년 미국으로 건너와 뉴욕대와 하버드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며 신경과 전문의 수련을 이어갔다. 이후 UCLA에서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그는 의사로서 전문성을 쌓는 한편 부동산 투자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책에는 의학과 투자 경험뿐 아니라, 신앙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도 녹아 있다. 조경구 박사는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준다”며 “미국에서 쌓은 경험과 배움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이번 책을 집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의 화해를 기원하며,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한·미·북한 경제 정상회담 추진 등 그간의 노력도 자랑스럽게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서전은 한국어와 영어판으로 출간되며, 세종문고(323-735-7374) 또는 조경구 신경내과(213-595-7519)에서 구입 가능하다.

부친 이어 서울대 동창회 · 한인 치과계 초석 다져

오홍조(치대 56) 제7대 미주동창회장 별세

동창회보 타블로이드판 본격 정착 이끌고 한인치과의협회장 맡아 후배들 정착 도와



고 오홍조 전 미주동창회장과 부인 에바 오 여사.

오홍조 전 미주동창회장이 지난 11월 22일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거쳐 2003년 제7대 미주 동창회장으로 선출되며,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 발전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의 부친 오재인 박사(경성치과전문의원전 32년 입학) 역시 치대 동문으로 2·3·4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지낸 바 있어, 부자가 모두 동창회장을 역임한 사례는 남가주에서 처음이자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인은 지난해 '서울대 남가주 50년사' 좌담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창회장을 다 해먹는다는 말이 나올까 두려워 숨어 다녔지만 결국 불들려 회장을 하게 됐다"고 회고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 일화는 지금도 남가주 동문사회에서 전설처럼 회자된다.

미주 동창회장 취임 후 그는 미주 동창회보를 현재의 타블로이드판으로 개편해 본격적인 정착을 이끌었다. 동문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며 사비를 들여 월간 발행을 이어 갔을 만큼 헌신적이었다.

아울러 고인을 곁에서 오랫동안 보좌해 온 이종도(공대 66)박사 역시 오 회장의 타계 하루 전 세상을 떠나, 동문 사회에 큰 슬픔을 더하고 있다.

남가주 치대 동창회의 성장에도 오 회장 부자의 기여는 절대적이었다. 부친 오재인 박사는 주정부를 설득해 해외 치과의사 라이선스 소지자에게도 미국 내 의료 활동을 허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오홍조 회장은 서울대 치대회장과 한인 치과의사협회장을 맡아 동문들을 위해 라이선스 시험 대비반을 조

직하고, 많은 동문들이 미국에서 자리 잡도록 돕는 데 헌신했다. 오늘날 치대 동문들이 미국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부자의 열정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오 회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다재다능한 인물이기도 했다. 한인사회에 생소했던 스쿠버다이빙을 보급하기 위해 협회를 창설했으며, 사진작가로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 부인 에바 오 여사와 함께 여러 차례 전시회를 열었다. 특히 해발 1만 4천 피트의 캘리포니아 화이트 마운틴에 자

생하는 '브리슬콘' 소나무 숲을 카메라에 담아 큰 찬탄을 받았다.

오 회장은 별세하기 6개월 전에도 동문들과 어울리며 골프를 즐겼다. 김종섭 한국 총동창회장은 "지난해 오 선배님과 라운딩을 했는데 티샷이 나보다 더 멀리 나가 놀랐다"며 오 회장의 타계를 애석해했다. 채규환(법대 69) 남가주 총동창회장도 "오 회장님은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는 물론 한인사회를 위해서도 큰 공헌과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회고하며 "장례는 서울대 동창회장으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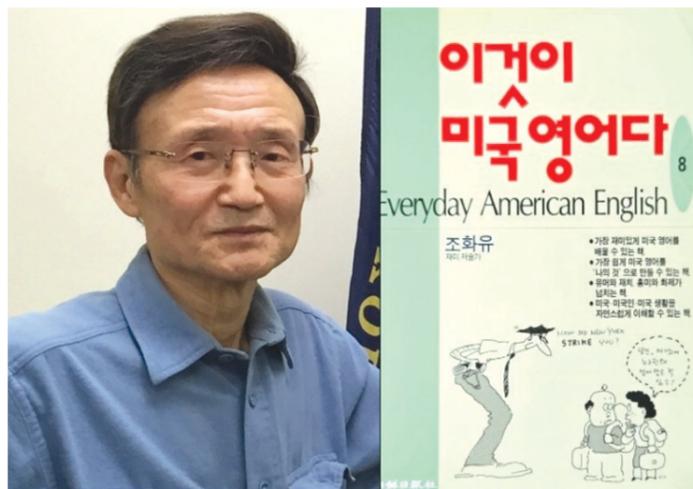
영어교재 '이것이 미국영어다' 저자 조화유(문리대 61) 동문 별세

버지니아서 향년 83세 저서 100만부 이상 팔려

영어 교재 '이것이 미국영어다'로 유명한 저술가 조화유(문리대 61) 동문이 지난 11월 17일 버지니아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3세.

고인은 부산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65~1971년 조선일보 기자, 1971~1973년 동양통신 기자로 일한 뒤 1973년 미국으로 건너와 웨스턴 미시간대에서 한미관계사를 연구했다.

중학생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좋아했고, 1972년 토플(TOEFL) 시험 어휘·영작문 부문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1973년 미국 이주 후 구어 표현을 알아듣지 못해 대학 구내



고 조화유 동문과 그가 쓴 영어교재 '이것이 미국영어다' 표지.

식당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된 것을 계기로 생활영어를 파고들었다.

2015년 한국일보 미주판에 쓴 칼럼에서 "나는 교수의 칭찬을 받을 정도

로 논문도 잘 쓰고, 보통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단어들도 알고 있었지만, busboy(손님이 식사를 하고 나간 후 식당 테이블에서 그릇 치우는 사람)를 '버스차장'으로 잘못 알아들었고, 식당에서 쓰는 Check, please!(계산서 갖다 줘요) Wait tables(테이블 서빙을 맡아라), Bus this table quickly!(이 테이블 그릇들 빨리 치워!) 같은 일상 생활영어는 알아듣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1975년부터 한국어 신문에 '생활영어 교실'이라는 칼럼을 쓰기 시작, 한국일보 미주판에 '미국생활영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다. 2015년 현재 "40년간 1만2천회 넘게 썼다"고 밝힐 정도로 연재를 계속했다.

1976년 미주 교포를 위해 '미국생활영어' 시리즈 전 10권을 발행했다가 1990년대에 조선일보사에서 '이것이 미국영어다'라는 제목으로 전 10권을 펴냈다. 국내에서 100만부 이상 팔리며 인기를 끌었다. 일본, 중국, 대만에서도 번역 출판됐다.

소설가로도 활동했다. 1970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홍일'이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1998년 창작집 '이것이 정말 내가 쓰고 싶었던 글들이었다', 2003년 단편소설 '다대포에서 생긴 일', 2010년 창작집 '전쟁과 사랑', 단편 소설 '죄와 벌' 등을 펴냈다.

재미과기협 헌신 남가주 이종도(공대 66) 동문 별세

리드코 엔지니어스 창업자 미주동창회 사무총장 역임

이종도(공대 66) 전 미주동창회 사무총장이 지난 11월 20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고인은 지난 1년 동안 주변에 알려지지 않은 채 투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항암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자, 의사의 권유에도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평온하게 생을 마무리하길 원했다고 유가족은 전했다.

미국에 유학와 UCLA에서 석사,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 동문은 리드코 엔지니어스(Leedco Engineers, Inc.)를 창업해 남가주 지역에서 다양한 토목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다. 토목공학과 구조공학, geotechnical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동창회에서는 '기부 큰손'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그의 갑작스러운 타계 소식에 많은 동문들이 애통해하고 있다. 최근에도 공대 오찬모임에 직접 참

석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며 거액의 기부금을 보내 동창회에 큰 감동을 준 바 있다.

고인은 동창회 활동뿐 아니라 재미과기협(KSEA)에도 헌신적으로 참여하며 한인 과학기술계 발전에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특히 2003년 제7대 미주 동창회에서 사무총장으로 봉사하며, 오홍조(치대 56) 회장과 함께 동창회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장례식은 12월 12일 Glendale Recessional Church에서 임수됐다.



고 이종도 동문 부부.

“사운드는 영화의 완성도 높이는 예술입니다”

할리우드 음향 감독 최성록(공대 92) 동문

지난 11월 2일 열린 남가주 총동창회 ‘관악세대 갈라’ 무대에 기타를 둘러맨 한 동문이 오르자 객석이 술렁였다. 기타를 튜닝하던 그는 멧쩍은 웃음을 지은 뒤 곧장 연주를 시작했다. 신들린 듯한 핑

거림에 “역시~ 최 감독!” 이라는 감탄이 터져 나왔다. 주인공은 공대 92학번 최성록 동문이다.

최 동문은 현재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손꼽히는 음향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브렌든 프레이저 주연의 ‘렌탈 패밀리(Rental Family)’의 사운드를 총괄했다. 일본의 ‘가족 대여 서비스’를 소재로 한 이 코믹드라마는 11월 말 개봉과 동시에 호평을 얻으며 오스카 진입도 노려볼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대 출신이 영화계에? 얼핏 낯선 조합이지만, 서울대 공대에는 영화로 진출한 동문들이 적지 않다. 홍기선, 김동민, 김인수, 김홍준 등 1970~80년대 한국영화계를 이끌었던 이들이 모두 ‘알라성’ 영화연구회 출신이다.

이들의 출발점은 1979년 서울대 학보 ‘대학신문’에 실린 한 줄 광고였다. “당신도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형영화(8mm, 16mm) 제작에 관심 있는 서울대생을 찾습니다. - 알라성 영화연구회.”

광고를 낸 이는 이봉원(문리대 66) 감독이었다. 당시 서울대에는 영화학과도, 영화동아리도 없었지만 ‘그래도 영화에 관심 있는 후배들이 있을 것’이라 믿고 낸 광고였다. ‘알라성’이라는 이름은 청산별곡의 후렴구인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에서 따온 것이다.

신청자가 몰릴 거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단 네 명이 지원했고, 모두 공대생이었다. 1970년대 후반, 독재 정권에 대한 반발 속에서 실험영화와 민중영화가 태동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공대생들이 만든 영화동아리가 훗날 한국영화사의 한 축이 될 것이라 예견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알라성’ 출신 중 한 명이 지금 할리우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최성록 동문이다.

그는 대학 시절 ‘알라성’에서 16mm 단편영화를 연출하며 영화의 기본기를 익혔다. 졸업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으로 진학해 음향을 전공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사운드가 가장 어렵고 매력적이었어요. 제대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후 홍상수 감독의 ‘극장전’, 과재용 감독의 ‘클래식’, 강재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등 흥행작들의 음향작업에 참여하며 충무로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미국 유학길에 오른 그는 남가주대



최성록 동문이 그의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밀리언 달러 덕’ 사운드를 맡아 할리우드에서 주목받는 음향감독이 됐다.



(왼쪽부터) 지난 11월 2일 열린 남가주 총동창회 관악세대 갈라에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최성록 동문. 최 동문이 음향작업을 한 영화 ‘렌탈 패밀리’(Rental Family) 포스터.



(USC) 대학원에서 영화음향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졸업 후 USC에서 강의를 하는 한편 독립 프로덕션을 차렸다.

최 동문이 할리우드에서 이름을 알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영화사 라이언스게이트가 제작한 ‘밀리언 달러 덕(Million Dollar Duck)’이었다. “감독과 친분으로 녹음을 맡았는데, 슬랩댄스 영화제 진출이 확정되자 급히 영화제 용 믹싱을 했죠.”

이 작품은 2016년 슬랩댄스 영화제에서 장편다큐 심사위원상과 관객상을 휩쓸었고, 영화음향편집자협회(MPSE)의 ‘골든 릴 어워즈(Golden Reel Awards)’ 최우수상 후보에도 올랐다. 골든 릴은 영화음향 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그가 얼마나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가는 절친 신경섭(자연대 91) 동문이 증언이다. “저도 1년에 두세 번 볼까 말까예요. 영화가 성록이 싫 그 자체죠.”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동문 행사에는 늘 얼굴을 비춘다. 지난해 5월, 양민(공대 76) 동문의 아들이 경찰의 과잉 폭력으로 숨졌을 때, LAPD 본부 앞에서 북을 두드리며 정의를 외친 이도 바로 최성록 동문이었다.

최 동문은 “음향은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예술”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창의성은 물론, 정밀한 기술과 깊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초기의 영화가 배우의 연기와 시각적 요소에만 의존했다면, 현대 영화는 사운드를 통해 감정과 긴장감을 전달한다. 발자국 소리, 숨소리, 공간의 잔향 하나까지도 인물의 감정을 표현한다. “사운드는 영화에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이라는 그의 신념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제 목표는 언제나 ‘조금 더 나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날 다음 작품이 아카데미 무대에 오를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장편 다큐 ‘밀리언 달러 덕’ 으로 이름 알려
‘태극기 휘날리며’ ‘클래식’ ‘설국열차’ 등 작업
브렌든 프레이저 주연 ‘렌탈 패밀리’ 음향 맡아
11월말 개봉, 2026년 아카데미상 수상 기대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8대 황효숙 미주동창회장과 임원 일동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서울대 종합화 50년, 옛 캠퍼스는 지금

올해는 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들이 관악으로 통합된 지 50년이 되는 해다. 1975년 단과대학들이 관악으로 모이기 전, 서울대의 역사는 서울 도심 곳곳에 뿌리내려 있었다. 동숭동의 문리대, 법대, 종암동의 상대, 공릉동의 공대, 용두동의 사대 그리고 수원의 농대까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옛 캠퍼스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한국에서 발간되는 서울대 총동창신문이 다음 50년을 향한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동숭동, 종암동, 수원 캠퍼스의 과거를 돌아보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올해는 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들이 관악으로 통합된 지 50년이 되는 해다. 1975년 단과대학들이 관악으로 모이기 전, 서울대의 역사는 서울 도심 곳곳에 뿌리내려 있었다. 동숭동의 문리대, 법대, 종암동의 상대, 공릉동의 공대, 용두동의 사대 그리고 수원의 농대까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옛 캠퍼스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한국에서 발간되는 서울대 총동창신문이 다음 50년을 향한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동숭동, 종암동, 수원 캠퍼스의 과거를 돌아보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1. 옛 모습을 간직한 서울대 본부 모습. 지금은 예술가의 집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세느강이 흘렀던 곳에 조성된 실개천. 3. 문리대 학생과 교수들이 즐겨 찾던 대학로의 중국요리집 진아춘, 지금은 위치를 옮겼다. 4. 법대 이전 후 문을 연 법대문방구, 상점의 이름이 과거의 터를 기억하게 한다. 5. 1956년 개업한 대학로의 명소 학림다방, '서울대학교 문리대 제25강의실'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마로니에 공원된 동숭동, 대학 본부는 '예술가의 집'으로

동숭동 문리대·종암동 상대 캠퍼스

1975년 서울대학교 본부와 문리대, 법대가 관악으로 이전한 뒤 동숭동 캠퍼스는 사라졌다. 캠퍼스의 울타리는 없어지고, 주변은 문화공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마로니에공원'을 걷다 보면 여전히 학교의 흔적이 느껴진다.

당시 학생들에게 마로니에는 문리대의 상징이었다. 이상봉(식물65) 동문은 입학 50주년 문집 '동숭클럽 이야기'를 통해 "마로니에 나무, 그것은 문리대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고 문리대 교정에서 가장 내세우던 나무였다"고 회고했다. 마로니에 나무 아래에는 '서울대학교 유지기념비'가 자리

대로 간직한 채 '예술가의 집'으로 변신했다. 계단과 아치, 중앙 홀의 구조가 본관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상징물인 4·19 기념탑은 관악 이전 때 함께 옮겨져, 현재는 4·19 공원에 세워두었다. 당시의 정신은 관악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법대 터에도 몇 가지 흔적이 남아 있다. 현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정문으로 쓰이는 기둥은 원래 법과대학의 교문이었다. 지금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지키지만, 한때 수많은 법대생이 오가던 자리이기도 했다. 그 맞은편에는



1970년 동숭동 캠퍼스의 서울대 교문.

세느강은 복개로 사라지고 진아춘 3대째 명맥 법대 자리엔 사대부설초, 상대는 사대부고로 1907년 세운 의대 연건 캠퍼스 시계탑은 건재

한다. 옛 문리대 본관과 도서관, 강의동 등을 축소해 재현한 모형도 함께 남아 있다.

정문 앞에는 작은 개천이 흘렀는데, 학생들은 그 물줄기를 '세느강', 다리를 '미라보 다리'라 불렀다. 지금은 복개돼 사라졌지만, 그 위로 걸어 들어오던 길이 오늘날의 해화로다. 보도 곳곳의 네모난 철제 덮개들이 당시 개천의 흔적을 암시한다. 일부 구간은 2009년 '대학로 실개천 조성작업'을 통해 실개천으로 부활했다. 보도 옆 좁은 수로를 따라 물이 흐르며, 옛 캠퍼스의 지형을 희미하게 되살리고 '세느강'의 기억을 일깨운다.

한때 도서관이 있던 자리는 아르코 예술극장이 차지하고 있고, 대학본부로 쓰이던 붉은 벽돌 건물은 외형을 그

'법대문방구'라는 작은 가게가 있다. 법대의 이전 이후에 생겼지만, 이름만으로도 이 일대가 서울대 법대의 터였음을 알려준다.

1956년 개교 10주년을 기념해 법과대학동창회가 기증한 '정의의 종'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정의의 종'은 교정의 상징이었다. 현재는 관악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에 자리하며, 그 문구 또한 그대로 남아 있다.

동숭동에서 도로 맞은편으로 시선을 돌리면, 또 하나의 서울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문리대와 법대가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대학로를 지켜온 서울대 연건캠퍼스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의대 정문과 그 너머 단정한 황갈색 벽돌 건



구◀ 법대정문 ▶현



구◀ 상대정문 ▶현



구◀ 향상림 ▶현





1.故 표현구 교수의 정년퇴임 기념으로 조성된 '사색의 동산'. 지금은 수원 시민의 쉼터가 됐다. 2. 'M'자 형태의 강의동. 미네소타대 건물 형태를 따왔다는 설이있다. 3. 수원 캠퍼스 정문도 그때 그대로다. 정문 왼쪽의 럭비부가 뛰던 운동장은 갈대가 무성하다. 4. 농대 본관. 6.25 전쟁 당시 총알 흔적이 타일에 남아있다.

농대 후문 밖 푸른지대 딸기밭, 지금은 파3 골프장

물이다. 경성제국대학 시절부터 자리를 지켜온 의학부 본관, 지금의 의대 행정관이다. 한 세기를 넘긴 건물 안에서는 지금도 행정과 연구의 시간이 이어진다. 옆에는 작은 수위실도 함께 남아있어, 80여 년 넘게 당시의 풍경을 거의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

병원 방향으로 걷다 보면, 붉은 벽돌 시계탑 건물이 한 세기 넘는 세월을 품은 채 서 있다. 이곳은 1907년 완공된 옛 대한의원 본관, 지금은 서울대의학 박물관으로 그 역할을 이어간다. 이 건물은 서울 의학의 상징이다. 1970년대 말 병원 신관이 들어서며 본관 기능은 옮겨졌지만, 건물은 지금도 시간을 새

기고 있다. 박물관 내부에는 과거의 의료기구와 교재가 전시돼 있다. 병원 인근에는 조선시대 함춘원의 일부였던 함춘문(含春門)이 남아 있다. 대한의원 시절에도 존재했던 문으로, 연건 캠퍼스의 역사를 증언한다.

그리고 최근, 이곳에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간이 더해졌다. 의학도서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빛의 도서관'이라 불릴 만큼 자연광을 살린 설계와 따뜻한 목재 인테리어가 어우러져, 오래된 캠퍼스 속에서도 새 시대의 숨결이 느껴진다.

성북구 종암동에는 서울사대부설 중·고등학교가 자리한다. 지금은 학

생들의 함성으로 가득한 이곳이, 옛 서울대 상과대학의 교정이다.

당시 본관 앞에는 약 150평 규모의 소나무 숲이, 도서관으로 가는 길목에는 100평 남짓의 숲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이 숲을 '향상림(向上林)'이라 불렀다. 젊은 상과대 학생들의 패기와 진취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향상'이 붙었다. 지금도 그 일부가 교정에 남아 옛 캠퍼스의 자취를 전한다.

서울대가 관악으로 이전한 뒤에도 일부 건물이 남아있으나, 대부분 2010년대에 헐렸다. 그중 옛 상과대학 도서관 건물은 현재까지 남아있으며, 지금은 사대부고의 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이 건물도 머지않아 사라질 예정이다.

사라진 교정의 기억을 남기기 위해 동문들은 2017년 이곳에 '서울상대 기념비'를 세웠다. 화강석 비석에는 상과대학 본관 사진과 함께 "서울대 상과대학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기념비는 사라진 캠퍼스의 기억을 이어주는 상징이 됐다.

"푸른 소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라던 그 숲의 이름처럼, 우리의 젊음도 높위를 향해 있었다"는 당시 학생들의 말처럼, 지금도 교정에 남은 소나무들이 그 자리에 서서, 상과대학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수원 농대 캠퍼스

수원의 서둔벌은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중심지였다. 1962년 농촌진흥청이 들어섰고, 1946년 설립된 수원농림전문학교는 국립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됐다. 농업중심지로서 100여 년 역사의 명맥을 이어온 것이다. 수원 농대는 심훈의 소설 '상록수' 속 채영신(최용신)의 실제모델이 거주했던 샘골과도 가까워 '푸른지대 상록캠퍼스'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다 2003년 군비행장

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이 동행했다. 수원 토박이인 그는 농대 졸업 후 농민신문 편집국장장과 농협 경기본부장 등을 지내며 농업 현장을 지켜온 동문이다. 그는 "이 캠퍼스에는 오래된 수목과 넓은 공간의 여유가 있었다"며 "이전 결정 당시 아쉬움이 컸지만, 경기도 덕분에 그 모습이 보존된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다.

"군 비행장이 가까워 시설 개발이 막



위 사진은 적벽돌이 인상적인 옛 도서관. 박물관으로 변경돼 지금도 옛모습 그대로이다. 아래는 옛 여자기숙사. 지금은 경기도 학생 기숙사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3년 서둔벌 떠났지만 원형 그대로 보존 상록회관, 푸른얼, 사색의 동산은 역사의 흔적

소음 문제, 서울대 종합화 정책에 따라 서둔벌을 떠났다.

수원 캠퍼스는 가장 늦게 옮긴 탓으로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다. 본관, 강당, 옛 도서관 등 주요 건물들은 여전히 서울대 소유로 관리되고 있다.

경기도로 이전된 농원예학관, 농공학관, 농화학관, 상록회관 등 부지는 '수원 상상캠퍼스'라는 시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상상캠퍼스의 여러 건물 외관에는 지어진 연도가 적혀 있고, 학과 표지판 역시 대부분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 캠퍼스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농대를 마주하게 된다.

이날 탐방에는 김훈동(농학63) 전 대

하고, 대신 지자체가 관리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지요."

정문은 반세기 전 모습 그대로다. 좌측의 운동장은 한때 '농생대 럭비부'가 뛰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갈대가 일렁인다.

정문 앞 다리는 동문들 사이에서 '미라보 다리'로 불리던 곳. 서호천이 흐르는 이곳은 당시 학생들이 다리 아래에서 낭만을 나누었던 장소이자, 정조대왕 능행차가 지나던 역사적 길이다. 정문에서 조금 올라서면 단층의 붉은 벽돌 건물이 눈에 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지만, 한때 농대 도서관이었다. 그 옆에는 지붕 회랑이 독특한 2-1

동이 있다. 일본의 건축양식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조금 더 오르면 농대의 상징 같은 본관과 대강당을 마주친다. 외관은 지금도 당시 그대로다.

미움(ㅁ)자 구조의 강의동은 건축학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미네소타 프로젝트(Minnesota Project)' 당시 미네소타 대학교의 건물을 모방해 지었다는 설이 있다. 중정에 잔디밭이 있어 햇살이 드는 구조로, 조용히 책을 읽거나 토론을 나누던 장소로 기억된다. 본관 벽 타일에 남은 패인 자국은 6·25 전쟁 당시 총탄 흔적이라고 김훈동 동

문은 설명했다.

본관 인근에 심어진 한 그루의 배나무가 세월을 증명한다. 1916년 농림학교 시절 심어졌다는 '진유(眞柚)배나무'로, 배의 조상으로 불린다. 그 아래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면, 농업입국의 이상을 꿈꾸던 젊은 학도들의 숨결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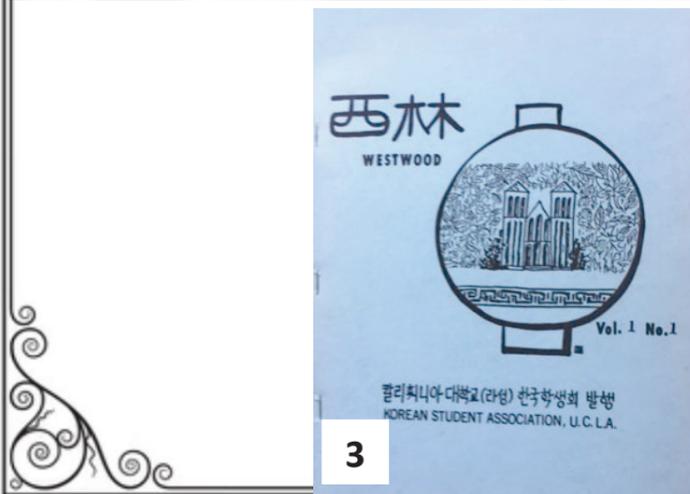
후문을 나오면 옛 딸기밭이었던 푸른지대가 나온다. 지금은 파3 골프장이 됐지만, 한때는 축제 때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찾던 명소였다.

이정운·김남주 기자

UCLA 도서관 “초창기 한인 유학생 사진·기록물 수집합니다”

UCLA 동아시아도서관의 한국학 사서(Korean Studies Librarian, East Asian Library) 조상훈씨가 UCLA 초기 한인 유학생(1960년~2000년)들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 조상훈 사서는 한국학 자료를 큐레이팅하면서 특히 이민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 유학생들의 UCLA 역사를 기록물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상훈 사서는 UCLA에서 공부할 당시 추억이 될만한 사진이나 기타 기록물이 있으면 UCLA 도서관(310-825-9535 / sanghuncho@library.ucla.edu)으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남가주 이채진(문리대 55) 동문이 UCLA에 보낸 사진 중 일부를 ‘추억의 사진전’으로 회보에 소개한다. 이채진 동문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60년부터 1965년까지 UCLA에서 공부하면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롱비치 캘리포니아주립대, 캔자스 대학, 워싱턴 대학을 거쳐 리버럴 아츠 명문인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에서 국제정치학 석좌교수로 은퇴했다. 미국 사회과학협의회 한국학 분과위원장도 지냈다.



이채진(문리대 55) 동문의 UCLA 유학생생활(1960~1965)

한인학생회장으로 Westwood 잡지 발행

1. 1960년 가을학기 대학원에 입학해 서울고를 나온 구본협(신문학 전공), 김경학(경영학 전공) 등 2명의 한국 학생과 학교 근처에 있는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은 나보다 2년 전에 UCLA에 입학했기에 여러 면에서 나를 도와주며 내 유학생생활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준비한 식사는 별로였다. 설거지는 내가 전담했다.
2. 나는 1960년 처음으로 Thanksgiving Day를 맞아 옆방에 사는 미국 여학생 Barbara and Kathy와 함께 터키를 잘 먹었

- 다. 그들은 내가 실용적인 영어를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주말이 되면 여러 한국 학생들이 우리 아파트에 찾아와서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961년 봄학기, 나는 보다 조용한 학교 기숙사로 옮겼다.
3. 1963년 UCLA 한국학생회 회장에 당선돼 ‘Westwood’(서림)라는 잡지를 발행하였고 창간사도 썼다. UCLA가 있는 동네 이름이 Westwood이기도 하지만 젊은 학생들이 수필과 같이 학문적으로 무력무력 자라야 한다는 숨은 뜻도 있었다. 그 옛날에는 아무도 한글 타자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에 우리

- 편집위원들은 주말에 한국총영사관에 있는 타자기를 빌려 30쪽에 달하는 원고를 어렵게 완성할 수 있었다. 나는 크리스마스 파티와 해변가 파티도 마련하였고 명사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도 열었다. 40여 명 되는 회원들 가운데 10여 명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내가 있는 동안 한국 학생들 사이에 다섯 쌍의 캠퍼스 커플이 탄생했다.
4. ‘망중환’이라고 했던가. 우리들은 Griffith Park에 가서 말을 타기도 했다. 왼쪽은 이채진, 중간은 승마 선수인 정재문(문리대 55, UCLA 경영학 전공, 작고), 그리고 오른쪽은 배우보다 미남인 주재현(공대

5. UCLA 공학 전공).
5. 1965년 박사과정을 끝내고 University of Kansas 정치학 조교수로 임명되어 LA를 떠날 때 서울대 동창들이 환송을 해주었다.
왼쪽부터: 사공일 (상대 58, UCLA 경제학 전공, 귀국후 재무부장관이 되다), 정재문, 박인석 (공대 55, UCLA 공학 전공), 이채진, 그리고 유찬우 (문리대 55, Brigham Young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철도 회사에 근무하다 은퇴). 다섯 사람 모두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안정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해법을 묻다

SNU 11월 포럼

정철균 박사의 에너지 산업의 미래 전략



정철균(에너지자원공학과 01)
에너지 기업 SLB의 AI & Reservoir Interpretation Engineering Manager

서울대 미주동창회 SNU 포럼 11월 강연 주제는 ‘에너지 산업의 미래 전략: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이었다. 이날 강연에는 에너지 기술 기업 Schlumberger (SLB) 휴스턴 포메이션 이밸류에이션(HFE) 센터에서 AI 및 저류층 해석 엔지니어링 매니저(AI & Reservoir Interpretation Engineering Manager)로 근무하는 정철균 박사(에너지자원공학과 01)가 초청됐다. 정 박사는 세계 에너지 시장을 이끌어온 글로벌 기업의 도전과 실패 사례를 소개하며 에너지 안보라는 현실적 과제와 지속가능한 에너지라는 시대적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들려줬다.

과거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으로 불린 영국의 에너지 기업 BP는 2000년대 초 “Beyond Petroleum”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과감한 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로고도 태양을 형상화한 ‘헬리오스(Helios)’로 바꾸며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나 2005~2008년 국제 유가 급등으로 BP는 다시 화석연료 중심으로 돌아갔고, 2010년 멕시코만의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 폭발 사고로 사회적 책임 논란까지 겹치며 전환 전략은 사실상 멈추게 됐다.

그럼에도 BP의 전환 실험은 이어졌다. 2020년 “리이미징 에너지(Reimagining Energy), 리인벳팅 BP(Reinventing BP)”를 선언하며 넷제로(Net-Zero) 전략을 발표하고 석유·가스 자산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쳤고, 2023년 전환 전략을 앞장서 이끌던 버나드 루니 CEO가 사임한 이후 BP는 다시 “석유와 가스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실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했다.

이러한 반복된 전환과 후퇴는 에너지 시장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정철균 박사는 “에너지 전환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전환 속도와 방식은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친환경으로 가자’는 선언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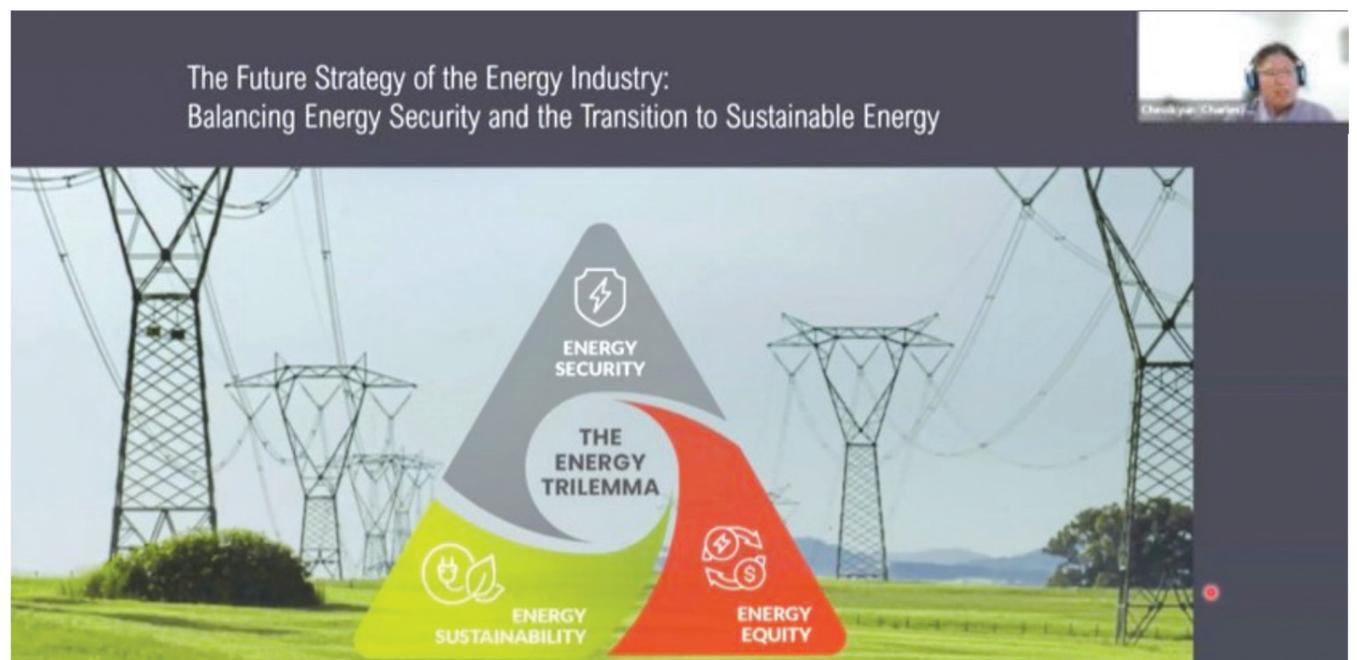
이 같은 전략적 딜레마는 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트리레마(Energy Trilemma)’와도 맞닿아 있다. 에너지 안보(공급 안정), 지속가능성(탄소 감축), 형평성(공정한 접근성)이라는 세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블룸버그 등이 제시한 2050년 넷제로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에너지 소비 추세를 유지하면 CO₂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매우 가파른 감축 경로를 따라야 하고 풍력·태양광·원자력·CCS 등으로 이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가 제시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따른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2019년 약 415 EJ(엑사줄)에서 불과 몇 년 만에 590 EJ로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고 있으나 전체 에너지 소비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 부족하며 인구 증가와 산업 구조의 전력 의존 강화도 에너지 수요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

최근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력 소비의 폭발적 증가다. 전기차 확산과 산업 에너지의 전력화가 영향을 미치



11월8일 열린 서울대 미주동창회 SNU 11월 포럼에서 정철균 박사가 ‘에너지 산업의 미래 전략: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늘고 있지만 에너지 소비 증가 못따라가
AI 인프라 확대되며 클린파워 확대 더 시급한 과제로
경제성과 공급·수요 균형 고려한 정책이 논의의 중심
한국 대왕고래 유전, 석유고갈 질의 응답도 흥미로워

고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AI 트레이닝과 데이터센터 확장이다. 일부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력 수요가 연 4% 가까이 증가하는데 이는 과거에 거의 없던 현상이다.

AI 인프라 확대가 지속되면 전력 수요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그만큼 클린파워 확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된다.

정 박사는 넷제로의 방향성은 옳지만 산업 구조, 인구 증가, 기술 발전 속도, 기존 플랜트의 수명 등을 고려하면 급진적 전환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스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적고 전력화와 궁합이 맞아 생산·소비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CCS가 상용화되면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자력 확대가 자주 언급되지만 “원자력만으로는 넷제로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업계가 선택하는 현실적 시나리오는 경제성과 공급·수요 균형을 고려한 ‘ETS 시나리오’로 수렴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전력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지만 화석연료도 일정 비율 유지된다. 정 박사

는 “2050년까지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전환 속도는 매우 더디다”며 “기술·투자·정책을 함께 동원한 현실적 접근만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은 참석 동문들과 정 박사가 주고받은 질의 응답이 강연 내용만큼이나 알찬 정보로 관심을 모았다.

우선, 정부 기금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연구자들을 위한 팁 하나.

“DoD(Department of Defense)는 짠데, DoE(Department of Energy)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다. 프로포절 몇 장만 써도 들어오는 금액은 훨씬 크다.”

정 박사는 “작년, 재작년 DoE 리뷰 프로젝트의 리뷰어로 참여했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어 허황돼 보이는 프로포절에도 일단 펀딩을 해주자는 분위기였다”며 “DoE는 모든 에너지 소스에 모든 기술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물을 준다는 방침으로 에너지 전환 기술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문들은 “이 귀중한 정보를 이제야 알게 됐다”며 웃으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현재 확인된 석유 매장량으로 인류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도 풀렸다. 정 박사는 우선 50년이라는 답을 제시했지만 이어 “970년대엔 앞으로 35년, 80년대엔 앞으로 40년, 2000년대에도 40년이 남았다는 기사가 반복됐다”며 “석유가 모자라서 석유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석유가 필요 없어지는 순간 석유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인된 매장량(Proved Reserves)은 현재 유가와 기술로 경제성이 있는 비율만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매장량 중 12~18%만 생산한다”며 “유가가 오르면 더 많은 기술을 써서 더 깊고 어려운 지층에서도 생산하려 할 것이고 새로운 매장지도 계속 발견되기 때문에 지구에서 석유가 완전히 고갈되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에서 논란이 있었던 동해안 대왕고래 유전 이야기도 나왔다. 정 박사는 “지질 데이터를 보면 구조 자체는 유망한 것이 맞다”면서도 “구조가 유망하다고 해서 충분한 매장량이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며 “있다·없다를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사업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우디 담맘 세븐 사례를 언급하며 “한 번만 더 뚫자, 딱 한 번만 더, 정말 한 번만 더, 이렇게 여섯 번 실패하고 일곱 번째 시추에서 성공해 사우디가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다”며 “한 번 시도해보고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이 아닐까 업계 종사자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강연 말미에는 에너지 기업 관련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한 가벼운 대화도 이어졌다.

필라델피아 지부

동문·가족 20명 즐거운 가을 골프대회

필라델피아 동창회는 지난 10월27일 The Bucks Club에서 동문과 가족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추계 골프대회를 열었다.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 동문들은 골프를 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대회 결과 1등상은 빈정훈(공대 95) 동문이 받았다. 이날 이상준(공대 64) 동문이 서울대 로고가 새겨진 골프공 1도즌을 찬조했다.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들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캐츠킵 단풍 여행, 동문애로 더 따뜻하게 물든 하루

뉴욕 지부

골든클럽 회원 41명
단풍 즐기며 폭포 산책

지난 10월 16일, 골든클럽 회원 41명이 Catskill의 명소인 North and South Lake Shore와 Kaaterskill Falls 단풍 관광을 다녀왔다.

가을 풍경은 아름다웠으나 다소 낮은 기온과 호숫가로 불어오는 강풍 때문에 준비해 간 도시락을 야외에서 천천히 즐기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일부 회원들은 버스 안에서, 일부는 벤치에 앉아 식사를 하며 “단풍보다 바람을 더 많이 봤다”는 유쾌한 푸념을 나누기도 했다.

그럼에도 회원들의 따뜻한 정은 빛났다. 흥중만 전 회장 부부가 준비해 온



캐츠킵의 단풍 명소로 데이 트립을 간 뉴욕 골든클럽 회원들이 호숫가에 모여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버너로 동굴레차와 커피를 끓여 나눠줘 회원들은 뜨거운 차를 호호 불어 마시며 가을의 정취를 함께했다.

이어 이동한 Kaaterskill Falls 주변은 바람이 거의 없어 일행은 편안하게 폭포를 감상할 수 있었다. 회원들은 완만한 산책로를 따라 폭포 위쪽 관람대로 올라가, 두 갈래로 힘차게 떨어지는

물줄기와 단풍이 어우러진 장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몇몇 회원은 용기를 내어 폭포 하단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계단을 따라 내려가, 쏟아지는 물줄기와 웅장한 물소리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기도 했다.

이번 관광은 지난 7월 31일 Longwood Garden 방문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행사다. 골프를 즐기지 않는 회원과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여행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회원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우애를 더욱 돈독히 했다. 많은 회원들이 내년에도 이와 같은 데이 트립을 두 차례 정도 더 마련하기를 희망했다.

뉴욕 동창회 장학기금 골프대회 ... 충분한 기금 마련

지난 10월 23일, Split Rock Golf Club에서 27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뉴욕 동창회 장학기금 골프대회가 열렸다. 최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참가비를 120달러에서 150달러로 인상했음에도 많은 동문들의 협조로 대회는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대회 자체적으로는 여전히 적자가 발생했지만, 적

자 폭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는 덥지도 않고 다소 쌀쌀한 정도여서 골프를 즐기기에 적합했다. 라운딩 후 모임 장소는 이전구 위원장이 걱정하며 여러 방법으로 더 나은 장소를 찾고자 했으나, 골프장 측이 당초 지정한 장소를 고집하여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막상 예상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어서 안도할 수 있었다. 이전구 위원장을 비롯해 동창회 젊은 임원 2명이 골프 라운딩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행사는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번 모임은 동창회 임원들(이진환, 이창길, 박수형, 한윤미)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여 더욱 뜻깊었다.

지난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와 마찬가지로, 김광현 동문이 본인 그림을 상품으로 기증하고 동문들이 적극 참여해 더욱 풍성한 모금행사가 되었다. 골프대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기부금을 희사한 동문도 있어,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었다.



지난 10월23일 스플릿 락 골프 클럽에서 열린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에 참가한 뉴욕 동문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맨 왼쪽부터) 모임 시작에 앞서 Potato Chip정상으로 등반을 떠난 동문들. 정상에 오른 동문들이 인생 컷을 찍고 있다.

“어머! 예쁘네요” 아기들도 한뭉치 레이크 파웨이 하이킹

샌디에고 지부

동문·가족 70명 참가
웃음과 이야기꽃 활짝

레이크 파웨이 하이킹(Lake Poway Hiking)이 열린 11월 첫째 날, 화창할 줄 알았던 날씨가 짙은 안개와 보슬비로 불안한 기미를 보인 까닭에 집행부는 긴장한 표정들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썰렁함이 느껴지는 정자 안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커피와 베이글을 보고 누군가의 바쁜 새벽 발걸음이 있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전에 약속이 있던 박성주(인문대 95) 부회장은 7시 반에 커피와 베이글을 준비하고 식사 시간에 합류했습니다.

산적 같은 외모에 타고난 낙천적인 회장님은 짙은 안개를 한 번 보고, 날씨 걱정은 하나도 없는 듯 이름표를 챙기고 테이블보를 씌우느라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다행히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흐릿하게 호수의 수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둘 모여드는 동문들로 주최 측의 마음에 살짝 안도감이 돌아옵니다.

식어 가는 커피의 안타까운 향기가



한참 얘기를 즐기던 동문들은 박상호 회장의 강압(?)에 함께 모여 단체 기념사진을 찍었다.

깊은 산속 하얀 잿잔의 향내보다 더 깊은 여운을 남기려 할 즈음, 어느덧 모임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심상철(공대 81) 등반대장을 모시고 Potato Chip 정상으로 일찍 떠난 동문들은 이미 모임 장소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사람들과, 처음 만난 동문들과의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아쉬운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조폭처럼 덩치가 큰 회장님의 강압(?)에 의해 모두들 모여 단체사진을 찍습니다.

Lake Poway로 향하는 동문들은 모두 본인이 원하는 거리의 하이킹을 시작합니다. 염두호(공대 57) 선배님과

이민구(물리 99) 동문이 Lake Poway를 도는 하이킹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사를 픽업하러 간 저희 부부(오충훈 / 백경희)는 그 와중에 밥이 제때 되지 않아 가게 앞에서 30분간 마음을 태워야 하는 비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점심 식사는 12시가 조금 넘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Potato Chip 정상에 올라간 동문들은 12시 30분쯤 도착하여 조금 늦게 점심 시간에 합류했습니다.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스러지는 안개와 함께 움츠러들었던 마음들도 열리는 듯했습니다. Potato Chip에서 인생 사진을 찍은 사람들, “화학은 물리보다 못하다”고 편잔을 들은 선배

님, 그 장면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물리 전공 후배님. 54학번 선배님(정현식 공대 54)으로부터 19학번 후배님(정윤제 수리과학 19)까지,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모임에는 송년회를 제외한 행사 중 역대 최대 참가 인원인 70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유달리 예쁜 아기들이 많이 참석한 까닭에, 지나가다 아기가 보이면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하고 물어보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아기와 얼굴이 익숙해지면 “안아 봐도 될까요?” 라는 말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글 = 오충훈(물리학과 81) 차기 회장

세대와 장르를 잇다, 남가주 미대 동문전 성황리 개최

남가주 지부

27명 동문 작가, 43점 전시
한국 예술의 아름다움 전해

남가주 미대 동문전이 지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LA 한인타운 샤토 갤러리(관장 고석자, 문리대 72)에서 열려 회화, 조각, 도예,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43점을 선보였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동문전은 남가주 미대 출신 작가들의 창작 여정을 돌아보고,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 온 예술적 기록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명규 미대 동창회장은 “이번 전시회는 우리 동문들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와 새로움을 탐구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바쁜 삶 속에서도 예술을 통해 잠시 멈추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전시회에 참여한 동문 작가들과 역대 남가주 총동창회장 등이 개막식에서 함께 어울리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작품들이 한 공간에 어우러지며, 동문들의 깊고도 폭넓은 예술세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전시회는 남가주 한인교와 타민족 관객들에게 한국 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도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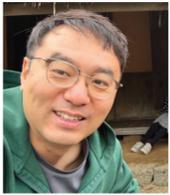
전시 준비에 힘을 보탠 김경애 총무

는 “작품에 담긴 삶의 이야기와 감정이 관람객들에게 잔잔한 울림으로 전해져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강영일, 김경애, 김구자, 박운정, 김윤진, 김혜숙, 노성인, 박다애, 박영구, 박혜숙, 백인분, 백혜란, 서동현, 성수환, 신정연, 신혜자, 심영자, 오성주, 유부강, 이명규, 이상훈, 장

원경, 현혜명, 황영애, 홍선애, 한석란 등 총 27명의 동문작가가 참여했다. 한편 전시회 오픈 행사에는 채규환 남가주 총동창회장과 양수진 차기회장을 비롯해 김지영, 박혜옥, 성주경, 김경무, 임춘택 등 역대 회장단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상강 전 미주 동창회장도 동문들과 함께 작가들을 격려하며 전시의 의미를 더했다.

제주의 바람과 햇살 속에서 우린 다시 청춘이 됐다



임동근 (농생대 대학원 14)
미주동창회 총무국장

제주여행의 시작과 끝은 황효숙 회장의 “손 꼭 잡고 걸어요” 라는 한 마디였다. 10월 21일 아침 김포공항에 모인 12명의 얼굴에는 홈커밍데이의 따뜻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인생의 굵이굵이를 넘어 다시 한 자리에 모인 선배님들은 이번에는 서로의 배우자와 함께 제주로 향했다. 서로 다른 삶의 속도로 지나다가도 모이면 금세 ‘서울대 선후배’ 이자 ‘미주 가족’ 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지는 사이다. 전날 밤까지 일정 점검으로 마음이 분주했던 나였지만, 공항에서 선배님들의 설렘 가득한 미소를 마주하며 피로가 스스로 풀려버렸다. ‘힐링과 로맨스’ 가 이번 여행의 철학이 될 것임을 그때 느꼈다. 연로하신 선배님이지만, 아니 어찌면 그렇기에 더욱 우리에게서 치유와 낭만이 필요했다.

서울대 미주 동문 12인의 힐링 로맨스 제주 여행기

제주 여행에는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사대 65, MN), 이길송(상대57, WA) & 안문자 부부, 김영덕(법대58, CA), 한효동(공대58, CA) & 한유선 부부, 김인배(수의대59, WA) & 김신자 부부, 문소자(음대60, NY), 고용규(의대67, CA) & 고은옥 부부, 임동근(농대 대학원 14, MN) 동문이 참가했다.

홈커밍 데이를 맞아 모교를 방문한 미주 동문들은 10월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 동안 제주도를

첫째 날 - 괄지해변의 파도와 함께 열린 여행의 첫 장

제주에 도착해 우리를 제일 먼저 맞아 준 것은 괄지해변의 짙푸른 바다였다. 산책로를 걷는 동안 제주의 바람이 우리를 감싸 안았다. “제주 바다가 이렇게 파랬나?”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들은 하나둘 손을 맞잡고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걸었다. 그 뒷모습은 어떤 영화의 장면보다 아름다웠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단체 사진 속 12명의 얼굴에는 맑은 듯한 웃음이 번졌다. 누군가는 60년 넘게 함께 걸어온 길을, 누군가는 손을 처음 맞잡던 젊은 날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 사진 한 장이 이번 여행의 첫 장을 열었다.

이 폭포, 수십 년 전에 왔을 때랑 똑같네” 어느 선배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월은 흘렀지만 폭포는 그때도 이렇게 물을 쏟았고 지금도 그렇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산책로를 내려오는 길, 선배님들 손에는 아이스크림콘이 하나씩 들려 있었다. “별건가 싶지만 너 무 좋은데?” 폭포를 보고, 바람을 맞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이 소박한 순간이 여행의 진짜 선물이었다.

대포 주상절리에서 우리는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다. 현무암 기둥들이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과 그 위로 부딪히는 파도가 만들어내는 하얀 물보라. 누군가 “경이롭다” 는 말을 했고, 맞는 말이었다. “일정 변경이 오히려 잘된 것 같아요” 라는 회장님 말에 모두가 동의했다. 때로는 계획에 없던 변화가 더 좋은 추억을 만들기도 하지 않는가?

셋째 날 - 황금빛 석재와 ‘정예 5인’의 성산일출봉

우리는 산굼부리 석재밭에서 아침을 맞았다. 하늘이 우리를 축복하듯 맑고 화창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물결 앞에서 모두가 감탄을 터뜨렸다. 김영덕 선배는 준비해온 DSLR 카메라를 꺼내 연신 셔터를 눌렀고, 그 순간들마다 선배의 얼굴에 행복함 미소가 번졌다. 부부들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고 사진을 찍었고, 혼자 오신 선배님은 석재 사이에서 풍경과 함께 조용히 한 컷을 남기셨다. 세대도, 삶의 자리도 다르지만 이렇게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기니 모두가 같은 빛을 띠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곳에 머물렀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석재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오후 일정이 뭐더라?” 는 선배님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내가 “성산일출봉

이요.” 라고 답했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곳, 제주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가이드가 “성산일출봉은 어디서 봐도 예뻐요. 올라가도 좋고, 아래서 바람 쐬어도 좋고, 편한대로 즐기세요” 라고 말하자 정상행에 손든 사람은 다섯 명이였다. 황효숙 회장님, 나, 김영덕 선배, 고용규 선배, 그리고 고은옥 사모님. “우리 정에 뽀뽀네!” 라는 한마디에 웃음이 터졌다. 그렇게 ‘정예 5인’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계단이 생각보다 가팔랐다. 숨을 고르고, 땀을 닦고, 다시 걸음을 멈추며 우리는 조금씩 정상에 가까워졌다. 눈앞에 펼쳐진 정상에서의 풍경은 푸른 바다 위로 떠있는 우도와 수평선 너머로 이어지는 끝없는 바다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니 땀과 성취감이 뒤섞여 햇살보다 환하게 빛났다. 내려오는 길, 문득 아래를 내

둘째 날 - 한라산 치유의 숲에서 ‘신선’이 되다

원래 일정은 가파도였지만 날씨 탓에 한라산 코스로 바뀌었다. 대신 우리는 등반이 아닌 ‘치유의 숲’을 선택했다. 숲 입구에는 지팡이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오, 이거 좋은데?” 선배님들 얼굴에는 다시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번졌다. 편백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바람이 잎을 흔드는 소리와 발밑 낙엽이 바스락거림이 조용히 숲길을 채웠다. 그때 한효동 선배님이 웃으며 말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팡이 짚고 숲을 거니니까, 다들 신선 같은데?”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그랬다. 숲 속을 천천히 거니는 모습이 속세를 벗어난 신선들 같았다. 누군가 “도를 닦으러 왔나” 라고 받아치며 또 한 바탕 웃었다.

오후에는 ‘천지연 폭포’를 찾았다. “



제주에 도착해 제일 먼저 찾은 괄지해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단체 기념사진을 찍은 미주 동문들.



(왼쪽부터) 한라산 '치유의 숲'을 찾은 동문들. 성산일출봉에 오른 동문들. 가파도에서는 '걷고 쉬고, 다시 걷고 또 쉬는' 느린 여행을 즐겼다.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정자에 누워 쉬고 있는 동문들.

“손 꼭 잡고” 동문들과의 동행이어서 더 빛났던 닷새



미주 동문들의 제주 여행에서는 아름다운 풍광 만큼이나 커플들의 다정한 모습도 카메라에 많이 담겼다. 정답게 손을 잡고 꼭지 해변 산책로를 걷는 김인배(수이대 59) 동문과 부인 김신자 여자의 뒷모습(위 왼쪽 사진)에서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노부부의 아름다운 동행이 절로 느껴진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인배-김신자 부부, 이길송(상대57)-안문자 부부, 고용규(의대 67)-고은옥 부부, 상글로 온 황효숙(사대 65)-문소자(음대 60) 동문, 김인배-김신자 부부, 한효동(상대 58)-한유선 부부.

려다보니 정상에 오르지 않으신 선배님들이 보였다.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는 분들, 커피를 마시며 일출봉을 올려다보는 분들, 산책로를 천천히 걷는 분들.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아래에서 일출봉을 즐겼다.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그게 다 맞는 거고 성산일출봉이 주는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었다. 바람이 한 번 더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가자 다음으로 향할 곳이 자연스럽게 궁금해졌다.

그렇게 향한 곳이 함덕해수욕장의 델문도 카페였다. 문소자 선배님이 “한국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볼래요” 라는 말에 주문해드렸다. 첫 모금을 마시더니 선배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별로네...” 그런데 커피변을 한 입 베어 물고 다시 아메리카노를 마시더니 표정이 환하게 달라졌다.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좋은데!” 선배의 극찬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커피변의 마법이었다.

카페를 나와 우리는 함덕해수욕장을 천천히 걸었다. 그때 김인배 선배님이 모래 위에 지팡이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하셨다. “J” 김신자 사모님의 이니셜이었다. 조심스럽고 정성스레 그려진 알파벳 하나가 어떤 말보다 깊은 사랑을 담고 있었다. 사모님은 부끄러워 하시면서도 환하게 웃으셨다.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이것이 진짜 로맨스구나.

넷째 날 - 가파도에서 느린 여행의 진수를 맛보다

배에 오르는 순간 파도가 우리를 흔들었지만 그마저도 즐거웠고, 가파도에

발을 디디니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 듯하였다. 청보리밭 시즌은 이미 지났지만, 푸른 바다와 하늘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았다. 섬을 세로로 가로지르는 길은 제법 길었지만 서두를 이유는 없었다. 100미터마다 자리한 꽃밭과 그 옆에 놓인 작은 돌무더기들은 우리를 잠시 쉬어가라 권하는 듯했다. 누가 먼저 앞으면 모두 자연스럽게 앉아 쉬었다. ‘걷고 쉬고, 다시 걷고 또 쉬는’ 그 반복이 지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가파도를 걷는 방식이었다. 바람이 불며 꽃들이 흔들렸고 우리는 그저 그 순간을 조용히 들이마셨다.

섬 끝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니 방과제에 정자가 하나 서 있었다.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고 정자에 오르자 사방이 바다였다. 계획에 없던 곳,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평범한 정자였지만 모하게도 그곳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 흘러갔다. 누군가 커피를 주문했고 얼마 후 오토바이 한 대가 방과제를 따라 올라왔다. 뒷좌석 박스에서 커피를 꺼내는 모습에 저절로 웃음이 터졌다. 우리는 정자에서 커피를 마시며 각자 편한 방식으로 그 시간을 즐겼다.

김인배 선배님은 유머로 모두를 웃게 했고, 몇몇은 펜스 가까이에서 바다 속 물고기들을 구경했다. 어떤 선배님들은 섬을 반 바퀴 돌아 선착장으로 가겠다며 다시 걸음을 옮겼고, 또 어떤 분들은 벤치에 누워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고 바람을 이불 삼은 그 평화로운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작은 정자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속도로, 그저 편한대로 보낸 시간이 진정한 ‘힐링’이었다. 유머로 웃음을 나누고 조용히 서로를 배려하며,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

오후에는 족욕이 준비되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자 쌓였던 피로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가파도의 꽃밭 사이를 걸었던 순간들, 섬을 가로지르던 바람, 정자에서의 휴식, 모든 것이 따뜻한 물속에서 부드럽게 풀려나갔다. 선배님들의 얼굴에도 편안함이 번졌다. 눈을 감은 분도 있었고, 발을 천천히 움직이며 피로를 풀고 계신 분들도 있었다. 말없이도 모두가 같은 위로를 받고 있었다.

설록차무지업으로 향하는 오후의 길은 더욱 평화로웠다. 뮤지엄에서는 녹차밭이 펼쳐진 풍경 속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제주에서만 살수 있는 티박스들을 구경했다. 그때 이길송 선배님이 내게 다가오셨다. “임 총무, 이거 가져가요, 여기서 가장 맛있다는 제주차예요, 이번 여행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잖아요” 그 말에 마음 한쪽이 뜨끈해졌다. 일정과 인원을 챙기느라 바빴던 나를 선배님들이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게 고마웠다.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 가파도의 정자가 자꾸 떠올랐다. 오토바이로 배달된 커피, 벤치에서 낮잠을 주무시던 선배님들, 그리고 끊임 없이 불어오던 그 바람. “이런 여행, 앞으로도 계속하면 좋겠어”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다.

마지막 날 - 돌문화공원에서 만난 수천 년 세월의 조각들

그렇지 않기를 바랬건만 마지막 날은 아쉬움으로 시작되었다. 선배님들의 표정이 어제와 달랐다.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아침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아쉬움을 안고 마지막 일정지인 제

주 돌문화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 들어서자 수백, 수천 년을 견뎌낸 현무암 조각들이 예술이 되어 서 있었고, 그 사이의 산책로를 걸으며 우리는 제주가 왜 ‘돌의 섬’인지 비로소 이해했다.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은 조용했다. 그러나 첫날의 설렘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만족과 아쉬움이 나란히 자리한 침묵이었다. 김포공항에서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으며, 벌써부터 “다음엔 어디로 갈까?”라는 말들이 오갔다. 서로의 손을 잡으며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건강하세요”

‘힐링과 로맨스’은 이번 여행의 단순한 컨셉이 아니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웃던 다섯날의 시간이 그 말의 의미를 완성시켰다. 12명 모두가 무사히, 건강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온 것, 그것이 무엇보다 큰 성공이었다.

나는 동창회가 왜 세월 속에서도 이어지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각자의 걸음은 달랐지만 함께 걷는 순간마다 마음은 고요했고,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는 배려가 전해졌다. 누구도 앞서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조용히 손을 보내 주었다. 다섯날 동안 우리는 ‘동행’이란 말이 마음을 나누는 방식임을 새롭게 깨달았다. 각자의 삶에서 쌓인 연륜과 온기가 모여 하나의 큰 흐름이 되었고, 그 흐름은 어느 순간 제주 바람처럼 우리 모두를 감싸 안았다.

나이 들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다. 제주의 바람과 햇살 속에서 우리는 다시 청춘이었다. 58학년부터 67학번까지, 우리는 여전히 청춘이다. 그리고 우리의 여행은 계속될 것이다.



(왼쪽부터) 구불구불 이어지는 수로를 따라가는 짱안의 뱃놀이. 물길의 양 옆으로 석회암 절벽들이 솟아있어 무릉도원을 떠올리게 한다. 판시판산 정상에 정복한 기념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다. 정상은 3,143m로 인도차이나반도 최고봉이다.

청풍명월을 품은 길 - 사파에서 하롱베이까지



최진석(법대 64) 동문 부부.

동문 17명과 함께한 5박6일 북 베트남 여행기

10월 12일 새벽, 호텔 문을 나서자 상쾌한 기운이 온

몸을 감싸며 다가왔다. 드디어 5박 6일간의 북부 베트남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지난 몇 달간의 준비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모교의 홈커밍데이 행사에 맞춰 일정을 논의했고, 4월 16일 단체 카톡방을 개설했다. 일정 확정과 공표, 참가자 모집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최종 인원은 17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여행은 내가 주선한 서울대 동문 단체여행 네 번째다. 첫 번째는 2022년 5월, LA에서 열린 미주 동창회 평의원회의에 참가한 남가주와 시카고 동문 30여 명이 함께했던 라스베이거스-그랜드캐년 여행. 두 번째는 같은 해 10월, 41명과 다녀온 제주·강원·동해의 5박 6일 여행(지금까지 단체 카톡방이 열려있다). 세 번째는 작년 가을, 16명이 떠난 '단풍과 온천'을 테마로 한 일본의 북알프스 여행이었다.

그 여행의 여운이 너무 좋아 앵콜 여행이 열리게 되었고, 바로 이번 베트남 여행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 사파-해발 1,600m의 가을을 만나다

첫날은 이동에 많은 시간을 썼다. 현지 시각 낮 12시 하노이 공항에 도착해 간단히 쌀국수로 점심을 해결하고, 고산 휴양지 사파(Sapa)로 향했다. 저녁 6시 무렵 호텔에 여장을 풀고 오골계와 공심채가 곁들여진 샤프샤브로 첫날의 식사가 이어졌다.

야시장을 둘러본 뒤, 중국 윈난성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친구와 카톡 통화를 했다. 국경을 접한 지역답게 목소리가 손닿을 듯 선명했다. 내일 오를 판시판산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이틀 날 아침, 베란다에서 마주한 사파의 풍경은 말 그대로 압권이었다.

해발 1,600m 고원에 자리한 이곳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 권력층의 피서지였고, 지금도 베트남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원 휴양지다. 한 걸음만 마을 밖으로 나서면 자연을 닮은 순수한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진다. 현대 문명에 익숙해진 우리가 다시 감성을 회복하게 되는 곳-그곳이 바로 사파가 아닌가 싶다.

판시판산(Fansipan)은 "흔들리는 거대한 암석"이라는 뜻을 지닌 베트남 최고봉(3,143m)이다. 원래는 1박 2일 코스지만,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덕분에 1시간 만에 정상에 닿을 수 있었다. 케이블카 아래로 그림처럼 펼쳐지는 짹마을(Cat Cat Village)의 다랭이논, 위로는 웅장한 판시판산의 기운이 감도는 장면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다.

정상 주변의 사원들, 석탑, 대형 불상 그리고 360도로 펼쳐지는 장관은 그 자체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였다. 짹마을은 내려가는 길보다 올라오는 길이 훨씬 힘들었다.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니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 하노이-비가 만들어준 '행운의 타이밍'

귀환길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루만 늦게 왔더라도 사파의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날씨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가이드는 "4대가 덕을 쌓은 날씨"라고 기뻐했고, 일정 하루를 당겨 출발한 결정의 행운을 함께 실감했다.

하노이에 도착한 뒤 베트남 마사지로 90분 동안 쌓인 피로를 씻어냈다. 점심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즐겼다는 분짜, 반세오, 월남쌌을 맛보았고 저녁은 미술관 2024 선정 식당에서 현지의 깊은 맛을 경험했다.

■ 하롱베이-바다 위에 떠 있는 수목화

마지막 일정은 베트남 최고의 절경 하롱베이.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3,000여 개의 석회암 섬이 솟아 있어, 마치 자연이 만든 거대한 조각공원을 유람하는 듯했다.

한국의 다도해가 따뜻한 수채화라면, 하롱베이는 장대한 수목화였다. 용이 내뿜은 보석과 구슬이 섬이 되었다는 전설을 품은 이곳은, 왜 세계 7대 절경인지 단번에 느껴졌다. 승승동굴의 종유석과 석순은 수억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신비였다.

띠톱섬 해변을 거닐다 보니, 마치 꿈결 속을 걷는 듯했다.

■ 여행을 마치며

이번 북부 베트남 여행은 날씨, 일정, 숙소, 음식, 안내 모두가 최상의 조화를 이뤘다. 동문 모두가 하나 되어 협력하고 배려하며 "즐겁고 보람 있는 여행"을 만들어냈다.

사파의 청량함, 짱안의 고요한 물길, 하롱베이의 장대한 풍광까지-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었으며 이번 여행의 기록을 감사의 마음으로 남긴다.



짱안 뱃놀이에서 일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짱안은 육상의 하롱베이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의 숨은 비경이다.

■ 짱안-청풍명월이 흐르는 물길 위에서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인 짱안(Trang An) 생태관광지. '육지의 하롱베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나룻배를 타고 3시간 동안 석회암 지대와 동굴을 지나며 천혜의 자연을 감상했다.

천둥 번개 예보가 있었지만, 우리를 맞이한 것은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 초록빛 물결이었다. "오늘도 4대가 덕을 쌓으신 것 같다"는 가이드의 조크에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문득 소동과가 적벽부에서 노래한 '취지무금 용지불갈(取之無禁 用之不竭)'이 떠오른다. 취해도 금하는 이 없고 써도 다하지 않으니 (이는 조물주가 주신 무진장한 보배이니라). 자연의 무진장한 도리를 떠올리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감동에 잠겼다.



바람 한 점 없는 하롱베이의 아침.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작은 유람선 하나가 꿈속을 거닐듯 유유히 바닷물을 가르고 있다.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서울대 3형제의 홈커밍데이 참가와 강원도 고향집 방문기

산골서 의대 간 큰형은 ‘유리천장’을 깬 첫 주자였다



김자성
(의대 79)

이번 10월 모처럼 한국에 다녀왔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간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7년 전이었다. 올 초부터 의대 졸업 40주년이라는 말의 무게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계획했었다. 6월 초에는 이미 의대 동기들이 계획한 2박 3일의 짧은 일본 여행이 있었는데, 우리 부부는 일본이 처음인지라 따로 열흘 정도 일정을 추가해 일본 주요 도시를 돌아보았으니, 같은 해 일본과 한국을 모두 다녀온 셈이었다.

10월에 관악캠퍼스에서 열리는 홈커밍데이 행사에 처음 참여할 계획을 했고, 때마침 만형(의대 69학번, 흥부와 과, 미국에서 활동 후 작년 말 은퇴)의 동기들이 졸업 50주년 기념여행을 한국에서 하려는 계획과 겹치면서 형제들끼리의 가족 재회도 함께 계획하게 되었다. 바로 위 둘째 누나도 작년 말 LA에서 하던 치과의원을 접고, 아직 개원의로 일하는 남편과 함께 서울로 와 있던 터라 모두의 일정이 맞아 우리 4남 2녀 중 한 형만 제외하고 다 같이 모이는 형제들의 고향 방문 여행도 하게 됐다.

마침 관악캠퍼스는 올해가 이전 50주년이라 특별히 의미를 두었는데, 한국에 사는 둘째 형(법대 74학번)은 자신이 50주년에 가장 가까운 세대라며 의미를 두어 전체 홈커밍데이 행사는 물론 미주 동문들만을 위해 따로 마련된 점심 정찬에도 함께 참여했다.

의예과 이후 관악캠퍼스를 떠났으니 45년 만에 들른 캠퍼스는 많이 변해 있었고, 옛날 도서관·학생회관 근처 정도만 옛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홈커밍 배너 아래에서 서울대 동문 삼형제가, 함께 간 둘째 누님과 병리과 의사로 은퇴하신 큰형수님, 간호사 출신 우리 아내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아들 넷 중 셋이 서울대를 나왔으니 참 드문 성취라 할 만한데도, 웬지 우리 형제들은 그런 성취감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다.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로 차례로 올라와 적응해야 했던 시골 아이들의 눈에는 위로 뻗친 사다리는 길기만 했고, 게다가 미국으로 건너와 적응해야 했던 만형·둘째 누나와 나는 더욱 긴 도전의 세월을 살아왔기에 형제들끼리의 여행 같은 모임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제 졸업 40년,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운 좋게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 있는 상황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형제들의 소중한 만남이었다.

형제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레 과거의 기억을 많이 떠올리게 해 다양한 기억들을 되살려냈는데, 인상적인 것은 각자의 기억이 선택적으로 다를 수 있다



모교 홈커밍 데이 배너 아래에 모인 서울대 동문 삼형제. 왼쪽부터 김자역(의대 69), 김자혁(법대 74), 김자성(의대 79).

는 점이였다. 형제들은 시골 학교에서는 모두 우등생이었지만 서울에서는 그냥 시골 출신, 더 구체적으로는 ‘강원도 감자바우’들로 통했기에 늘 변방인·외부인 같은 기분이었고, 그나마 공부에 집중하며 열심히 살아왔다는 공통된 기억이 있었다. 형제 각자의 경험은 하나하나 독특한 삶의 이야기였고, 때로는 누가 더 고생했는가 경쟁하듯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미리 마련해 둔 미니밴을 타고 우리가 자란 동해시의 옛 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 시절 살던 동네는 일본 군국주의가 한반도에 두 번째로 만든 화학공장(당시 북삼화학, 이후 동부그룹의 모

사로 출발해 교장을 거쳐 몇 년 전 은퇴했다. 둘째 누나는 간호대학을 나와 후에 치과의사가 되어 미국에서 일하다 작년 말 은퇴했다. 막내인 나는 고교 평준화, 소위 ‘뽕뽕이 세대’ 로서 최고 학교를 목표로 환상이 깨져 혼자 독학의 길을 택하게 되었고, 두 형들의 본을 따 이과와 문과를 오가다 결국의 대에 진학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함경도 회령 출신으로 일찍 이화고녀에 유학했으나, 삼팔선이 그 어지며 고향으로부터의 지원이 끊기고 대학 진학이 어려워졌다. 하나뿐인 오빠는 일본 게이오 의대에 다니다 해방 후 서울대로 옮겨 의대 2회로 졸업

만형은 의대 졸업 50주년 맞아 동기들 만나고 법대 74둘째 형은 관악 캠퍼스 50주년 기념 3형제가 처음으로 모교 홈커밍데이 한자리

체가 된 삼척산업)의 사원 사택이었는데, 50여 채 되는 사택 중 우리가 자란 관사 2호는 1호 관사, 사원 합숙소와 함께 강원도 지정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었다. 당시의 건축 양식 등으로 보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이유라고 한다. 아버지는 평양에서 내려와 이곳을 평생 직장으로 삼아 일하시고 우리 육형제를 기른 뒤, 은퇴하시고서야 남은 두 자녀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셨다. 돌아보면 삼형제가 서울대를 다닐 수 있었던 공은 우선 만형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유리천장을 깨는 개척자는 뒤를 잇는 형제들에게 ‘나도 못할 게 없다’ 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둘째 형은 만형의 성취에 자극받아 더욱 노력해 동해시 북평중학교를 나온 후 경기고를 거쳐 서울 법대에 진학하는 멋진 기록을 남겼다. 그는 이후 증권회사 쪽으로 진로를 잡아 지금까지 현역으로 일하고 있다.

셋째 형은 청소년기 방황 끝에 변화의 체험을 하고 신학을 전공해 목회의 길로 들어섰다. 큰 누나는 빠르게 직업을 갖고자 교육대학을 선택해 초등교

했는데, 어머니에게는 큰아들이 오빠와 같은 길을 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삼촌은 일찍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나중에 자메이카에서 평생 의사로 사셨다.

이번 여행에서 하루 저녁은 우리 동기 여덟 명과 함께 식사했는데, 그중에는 의예과 시절 에리히 프롬의 저술들을 함께 공부했던 친구 둘이 있었고, 뒤에 같은 정신과를 전공하게 되었다. 결국 그 시절의 공부가 전공 선택에 영향을 준 셈이다. 한문에 능한 또 다른 친구는 우리의 만남을 한시로 표현해 주었고, 또 다른 한 친구는 그 한시를 최근 배우기 시작한 붓글씨로 써서 함께 나눠 주었다.

한국 여행 중 며칠은 함께 간 상대 75학번 김기형 선배와 우리 부부가 따로 특별 여행을 했다. 송광사에서 하루는 템플스테이를, 하루는 순천에 머물며 김 선배 지인의 안내로 순천 국가정원·영화촬영소·보성 차 농장을 돌아보았다. 서울에서는 진관사 근처 한옥마을에서 이를 머물렀다. 지방은 이제 예전 같은 ‘시골’ 느낌이 아니라

蓮建同硯
霜鬢紅顏
久別重逢
不亦樂安

인물짓고
힐환쓰다

蓮建同硯
(연건동 시절의 동창들)

霜鬢紅顏
(귀밑머리는 희어졌지만, 혈색은 좋네)

久別重逢
(오랫동안 헤어졌다 다시 만나니)

不亦樂安
(또한 즐겁고 편안하지 않은가)

깨끗하고 교통이 편하며 각기 특색 있는 관광지로 잘 정돈되어 있었고, 특별히 서울에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중소도시에서 살아도 좋겠다는 인상을 받았다. KTX로 두 시간 만이면 갈 수 있는 거리도 매우 편리했다.

송광사에서는 법정 스님의 수행처인 불일암까지 ‘무소유 길’ 을 걸으며, 걸음걸음 무소유의 정신을 묵상했다. 소유에 대한 바른 태도, 집착이 없는 초연한 태도, 물질에 쉽게 끌려가는 현대인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과 삶의 모토가 되었다.

은퇴하신 만형과 두 누님을 보며, 앞으로 남은 삶—특히 다음 10년—내게는 인생에서 집중적으로 뭔가를 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독특한 경험을 갖고 살아가며 동시에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남기는데, 어떻게 마지막 장(章)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큰 물음을 안고 돌아온 보름간의 한국 여행이었다.

그리고 돈 없는 시골 감자바우들도 거의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준 서울대학교에 대한 고마움, 또한 당시 강원도 출신들에게 주던 금강장학회의 혜택을 받았던 두 형님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형제들 모두 우리가 받았던 많은 혜택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나라는 여행이었다.

특히 홈커밍 행사 뒤 총동창회 회장님께서 삼익악기 본사로 초대한 만찬은 아주 성대했고, 음악회까지 준비해 주셔서 미국에서 온 동문들 모두 모교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

화가로 꿈꿨던 히틀러, 그가 그 꿈을 이뤘다면



김광현 (미대 57)

아돌프 히틀러(1889~1945)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의 한 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화가의 꿈을 품었고, 생애 동안 약 700여 점의 그림을 남겼다. 20세기 최악의 독재자이자 인류의 평화를 파괴한 인물이지만, 만약 그의 예술적 꿈이 이루어졌다면 역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 이 글은 그가 남긴 여러 작품을 통해 그의 성장 과정과 행적, 미술적 열망,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가 품었던 예술가로서의 욕망을 되짚어본다.

1. 히틀러의 아버지 알로이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세관 공무원으로, 엄격하고 권위적인 성격이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셨으며, 자녀들에게 자주 체벌을 가했다. 이런 가정환경은 어린 히틀러에게 큰 영향을 끼쳐 히틀러는 아버지와 달리 절제된 생활을 지향하며 술과 담배를 멀리했다.
2. 히틀러의 아버지는 비교적 안정된 직업과 재산을 갖고 있었고, 은퇴 후에도 연금으로 가족을 부양했다. 그는 아들이 자신처럼 공무원이 되어 안정된 삶을 살길 바랐지만 히틀러는 공무원보다는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다.
3. 히틀러의 아버지는 1903년 히틀러가 14세 때, 폐색전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히틀러는 평소 엄격했던 아버지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지만, 장례식 때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그는 이후 “아버지처럼 공무원이 되지 않겠다. 화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했다.
4. 히틀러는 15세까지 중등학교 수준을 이수했으나 실업 고등학교에서 유급했고, 1905년 16세에 자퇴한 뒤 본격적으로 그림에 몰두했다. 그는 예술의 도시 비엔나로 건너가 화가의 꿈을 키웠다.
5. 그는 18세에 비엔나 미술아카데미(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Wien) 입시에 응시했지만 탈락했고, 이듬해 재도전했으나 또 낙방했다. 학교 측은 그의 그림을 “기초는 탄탄하지만 창의성이 부족하며, 특히 인물화 실력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대신 “건축적 표현에 재능이 있으니 건축가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했고 히틀러는 큰 좌절감을 느꼈다. 당시 유럽 미술계는 입체주의·표현주의·초현실주의로 급격히 변모하던 시기였고, 히틀러의 그림은 사실적이고 상업적인 화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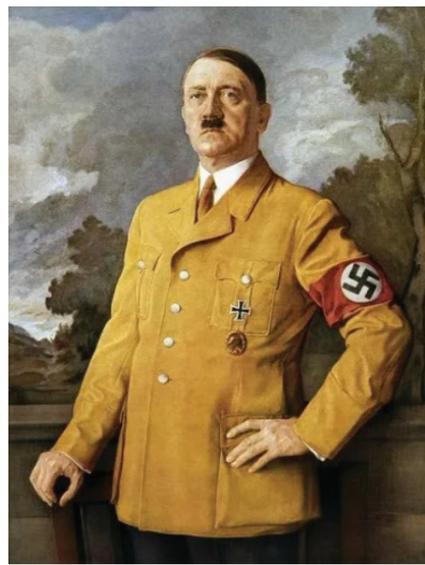
6. 히틀러의 형제 4명은 유아기때 모두 사망했고 어머니 클라라는 히틀러가 18세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경제적 기반을 잃고 부친의 연금과 남은 유품을 팔아 생활하며 노동자 합숙소를 전전했으며, 섬세한 건축물과 풍경화를 주로 그렸고, 염서용 수채화나 펜화를 그려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7. 히틀러는 고향 린츠로 돌아가 실업학교에 복학했고 ‘자화상’,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 유럽 각지의 건물과 거리 풍경 등 다양한 작

8. 히틀러는 1913년 24세 때 결국 화가의 꿈을 접고 독일 뮌헨으로 이주했다. 다음 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자원입대해 바이에른 제16보병연대에서 복무하며 전선에서 전령병으로 활약했다. 그는 전쟁 중 부상을 입고 철십자훈장(Iron Cross)을 받았다.
9. 전쟁 후 히틀러는 정치에 입문하여 민족주의 연설로 대중의 지지를 얻었고, 44세 되던 1933년 독일 총리에 올랐다. 이후 나치당을 중심으로 독재체제를 구축하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1945년 패전하고 56세에 사망했다.
10. 히틀러는 현대미술의 흐름인 표현주의·초현실주의·야수파를 ‘퇴폐적’이라고 규정했다. 1937년 뮌헨에서 ‘퇴폐미술전(Entartete Kunst)’을 개최하고 독일의 주요 미술관에서 압수한 65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폐기하거나 판매해 나치 정권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
11. 전쟁 기간 중 나치 정권은 유럽 각지에서 수많은 미술품을 약탈했다. 전후에 미국과 연합군은 이를 되찾기 위해 ‘모뉴먼트 맨(The Monuments Men)’ 부대를 조직했고, 독일 뿐 아니라 제3국에 숨겨놓은 미술품 10만여 점 수만 점을 찾아냈다.
12. 히틀러는 생전에 ‘게르마니아(Germania)’라는 거대 수도 건설 계획을 세웠고, 고향 린츠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관인 ‘총통 미술관(Führer Museum)’을 세워 약탈한 미술품을 전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전쟁의 패전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 품을 남겼다. 지금까지 약 700여 점의 그림이 확인되었다.
- ▶참고: Why Did Hitler Loot Art? 김광현 회고전(Retrospective Art Exhibition) 2025.09.20-09.30



유아기 히틀러의 모습. (1889~90년경)



히틀러 공석 초상화



1913년작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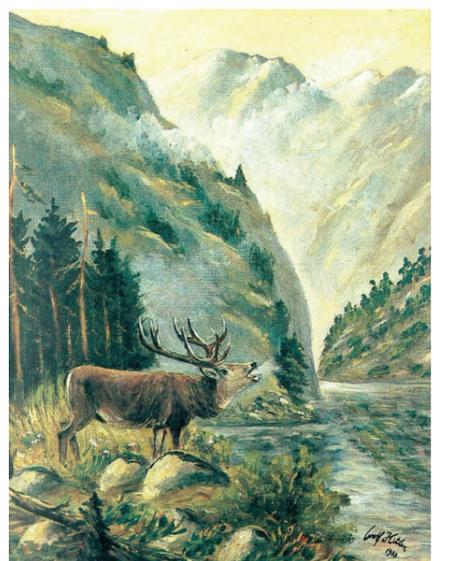
헌츠맨과의 이별, 1914년(27세) 제작



노이슈반슈타인 성 (8x12인치)



애완견 스케치



산속 호숫가의 아침, 1908년(21세)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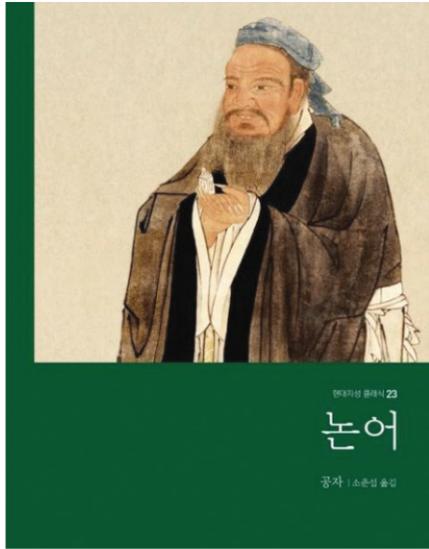
논어를 읽고 ‘춤춘 자’와 ‘전혀 얻은 것이 없는 자’



정태영
(문리대 71·뉴잉글랜드)

정태영 동문의 논어 단상

논어를 읽다 보면 문득 대부분 내용이 사람 살아가는 태도나 자세 등에 관한 것이란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것도 군주나 군자(지식인 계층)들의 자세나 태도 등에 관한 것이다. 일반 서민이나 보통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 같은 시대 서양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들은 사물의 본질과 본 모습을 알려고 하는 데 치중했다. 사실 이데아란 있지도 않는 것이지만... 주희(朱熹)가 주해를 단 논어(論語)를 1975년에 번역한 한상갑 전 관동대 교수는 “논어의 내용을 간단히 말한다면 일상의 비근한 이론(彝倫)을 말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론이란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지켜야 할 도리’란 뜻이다.



좀 더, 논어 독후감이랄까 논어라는 책의 서평을 말한 자는 정자(程子, 중국 송나라 때의 유학자 정자程子和 정이程頤 형제를 칭함, 1032-1107)이다. 그는 『논어』를 읽은 사람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논어》를 읽고도
전혀 얻은 것이 없는 자가 있고,
읽은 뒤에 그 가운데에서 한두 구절을 좋아하는 자도 있고,
읽은 후에 좋아할 줄 아는 자도 있고,
읽은 뒤에 곧 저도 모르게 손으로 춤추고 발로 뛰는 자도 있다”고 하였다.

[程子曰] 讀論語
有讀了全然無事者
有讀了後 其中得一兩句喜者
有讀了後 知好之者
有讀了後 直有不知手之舞之 足之蹈之者]

나는 이 대목을 음미해 가면서 과연 논어를 읽고 난 후에 ‘춤추는 자는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당시가 신분제 사회였음을 감안하면, 이들은 군왕이나 그 측근, 조정 신하, 유학자 같은 사대부, 즉 지배계층 등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실 유학의 이러한 계층 질서 유지 역할은 논어의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논어 안연편) 구절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입급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다.” 강조가 왕조 시대의 정치 질서 및 사회 질서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 아는 역사적 인식이다.

이 점은 서양의 플라톤이 각자의 신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의(justice)라고 말한 것과 유사하다.

물론 논어 같은 한문 전적을 읽는 대부분은 사대부 계층일 것이며, 정자는 이들을 분류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4분류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상상의 날개를 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논어를 읽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논어를 읽고도 ‘전혀 얻은 것이 없다고 한 자’는 누구일까?

아마 신분 질서에서 하층에 있는 ‘농상공(農工商)’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글도 몰라 읽지도 않았겠지만, 만일 읽었다 라면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또는 요즘도 가끔 쓰이는 흔히 하는 말로 “양반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나는 먹고 살기에 힘들어 죽겠는데 구름 잡는 이야기나 하고 있네...”라며 조소를 했을지도 모른다.

더 아래로 내려가 일종의 노예 계층, 한국으로 치면 중세·근세 사회에서의 머슴이나 노비에 해당하는 계층들이 읽었다 라면, 이들은 분노하거나 화를 내고, 심지어는 “뒤집어 버리자”고 내심 소리 질렀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의 만적(萬積) 같은 이들이 읽었다 라면 “저 양반 놈들

의 논어 서적을 불살라 버리자”라고 외쳤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칼 포퍼가 읽었다 라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 공자를 추가했을지도 모른다. 계층의 신분 이동의 사다리를 불허하는 담론을 펼쳤기 때문이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지만, 중국 문화 대혁명기(1960년대)에는 마오 사상에 아편 맞은 10대들, 새파랑지도 못해 순진한 새싹 같은 아이들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외쳤다. 미친 그들은 집단 신들림에 취해서 산둥성 곡부(曲阜)의 공자묘 등 수많은 공자 유물들을 파괴하였다. 이를테면 ‘단한 사회’(마오 사상이나 공산주의 아류)의 적으로 공자를 공격한 셈이다. 그러니 공자는 ‘열린 사회의 적’ 도 되고 ‘단한 사회의 적’ 도 되는 셈이다.

내가 논어를 읽어본 소감은 주(周)나라를 전범(典範)으로 삼고 있는 공자의 말이나 태도가 전편에 충(忠)·효(孝)·예(禮)·인(仁) 주제를 통해 일관되게 강조되어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공자는 “주(周)나라는 하·은 두 대를 거울 삼았으니 그 문화가 찬란하도다!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子曰: 周監於二代, 郁郁乎文哉! 吾從周] (논어 팔일편)

앞서 말한 정자 자신은 논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십칠·팔세로부터 《논어》를 읽었는데, 당시에 이미 글 뜻을 알았으나, 읽기를 더욱 오래한 것은 의미가 깊고 긴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程子曰] 自十七八讀論語讀之愈久 但覺意味深長] (주희 집주 논어 서문 중에서)

한편 사족이지만, 조선 말기 시대에 민씨 정권에서 핵심 역할을 한 민영익은 1883년에 미국 방문 사절단장으로, 즉 보빙사(報聘使: 답례 사절)의 전권대신이 되어 미국을 방문하였다. 미국 방문 후 이들은 서양 문물을 살피기 위해 대서양을 거쳐 유럽을 돌아 세계를 한 바퀴 돈 후 조선에 귀국하였다. 그

때 이들을 수행하고 안내한 주조선(駐朝鮮) 미국 공사 푸트가 배 안에서 하루 종일 논어만 읽고 있는 민영익에게 서양 문물, 신기술을 보라고 했으나 그는 계속 논어만 읽고 있었다고 한다. 논어를 읽고 그는 깊은 열(說, 기쁨)에 빠졌을 것이다. 민영익은 논어 첫 구절에 나오는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에 깊이 빠져 있지 않나 싶다.

당시 상황을 나는 이렇게 꾸며 본다. 푸트 공사: “민 대감, 방 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와 배 만드는 공장(조선소), 기차 만드는 공장(기계장), 옷 만드는 기계(방직기·방적기) 좀 보시오.” 민영익: 묵묵부답...

당시 조선의 막강한 지도적 위치에 있던 그가 논어보다는 서양 문물을 배 안에서 메모하고 보고 들은 것을 기술하고 서양 문물을 익혔었다 라면 조선의 운명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든다.

민영익은 민태호의 아들이었는데, 당시 민씨 척족의 수장인 제일 권세가 민승호(민비의 양오라버니)가 배달된 폭탄상자를 열다가 폭사당한 후 그의 양자로 입적하였다. 그는 이후 승승장구해 민비의 총애를 받으며 민씨 가문을 대표해 권세가의 맨 앞에 올랐다.

그는 초기에 온건 개화파가 되어 앞서 말한 1883년 미국 보빙사 단장으로 서양 문물 여행을 했다. 그러나 개화파와 갈등을 빚고 1884년 갑신정변 때 우정국 낙성식 연회에 참석했다가 김옥균 일당의 칼을 맞고 큰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미국인 의사 알렌의 치료로 기적적으로 소생한 바 있다.

이후 그는 조정에서 주요 관직을 역임하다가 1895년 민비가 시해되어 주요한 정치적 후원자가 없어지자 중국으로 건너가 내내 그곳에서 지내다 상하이에서 1914년에 죽었다.

첫눈 오는날

동문시



오(조)봉완
(법대 53·시카고)

수십 년 전에 떠난
태어난 나라에서는

첫눈을 맞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혹독한 겨울이
다가움을 예고하지만
첫눈을 반가워한다

첫눈이 오는 날이면
설레어한다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은
서로의 사랑이
첫눈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약속을
더 굳게 다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사람들은
눈 한 송이 한 송이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긴다

첫눈같이 티끌 하나 없이
아름다웠던 옛 사랑을
그리워하며
마음 깊이 간직한다

첫눈은 불순을 털어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니
추운 계절이 오더라도
첫눈을 반가워하는
태어난 나라의
믿음을 잊지 않으리





엄종열 (미대 61·필라델피아)
미주 전통한국문화연구원장

2003년 11월 7일, UNESCO가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한 한국의 전통 공연예술은 우리 민족의 창의력과 예술을 함께해온 우리 문화의 정수로 손꼽힌다. 특히 우리의 풍부한 성구(聲具)로 특징지어지는 판소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전통 성악 예술이다. 판소리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세계무형유산이라는 사실은 한국인의 자량이 아닐 수 없다. 판소리는 한 사람이 장단에 맞추어 소리(창)와 아니리(말), 너름새(동작)를 조화시켜 힘으로 연출하는 우리 고유의 '솔로 오페라'라 할 수 있다.

판소리는 '판'과 '소리'의 합성어로, '판'은 공연이란 의미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뜻하고, '소리'는 극적 내용이 담긴 창(唱)이다. 구전으로 전해져 부르는 노래는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 후기인 영조 30년(1754년)에 유진한이 지은 『만화집』의 내용으로 보아 적어도 숙종(1667~1720년) 시대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조선 후기 문헌에 보이는 광대소학지남(廣大笑學指南)에 기록된 바가 있다.

한편, 판소리가 본래 여러 가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공연의 기본 요소 중 소리와 아니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혹 평양 대동강에서 판소리의 효시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판

솔로 오페라 '판소리'

소리는 관중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되는 독특한 공연 양식을 지니고 있다.

판소리는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충청도까지 넓은 지역에서 전승되어 왔다. 전라도의 특성에 따라 소리꾼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전라도 동편제와 서편제의 소리 제작 기법이 판소리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경기좌도와 충청도의 소리제를 총칭해 '중고제'라 하였다. 동편제의 소리는 비교적 우조를 많이 쓰고 발성을 무겁게 하며, 소리의 고법(打法)도 짙고 굵고 웅장한 시김새로 짜여 있는 반면, 서편제는 계면조를 많이 쓰고 발성을 가볍게 하며 소리의 곡절을 길게 늘리고 섬세한 시김새로 짜여 있다.

한편, 중고제는 동편제 소리에 가까우며 소박한 시김새로 구성돼 있다. 판소리가 발달할 당시에는 한마당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아서 판소리 12마당이라 하여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배비장타령, 변강쇠타령, 장끼타령, 옹고집타령, 무숙이타령, 강릉매화타령, 가짜신청타령 등, 모두 12가 존재했다.

그러나 현실성 없는 이야기 소재와 소리가 점차 길어지면서 충·효·의리·정절 등 조선시대 가치관을 담은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만이 보다 예술적인 음악으로 가다듬어져 '판소리 다섯 마당'으로 정착되었다. 판소리는 우리나라 시대적 정서를 나타내는 전통 예술로 삶의 희로애락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며, 어려운 처지를 표현하는 청중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며 판소리 다섯 마당이 모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



여든 나이에 '심청가' 눈대목을 부르고 있는 인간문화재 성창순 명창.

정되었다.

예능 보유자로 춘향가에 김여란, 김연수, 김소희, 심청가에 성창순, 조상현이 추가로 인정되었다. 또한 춘향가에 성창순, 흥보가에 박초월, 적벽가에 송순섭이 새로 인정되었다. 판소리 공연의 빠질 수 없는 고법(북치는 장단기법)은 197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로 별도 지정되었고, 1991년 판소리에 통합되어 현재 김성권, 정철호가 보유자로 활동하고 있다.

판소리는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어 피지배층의 삶이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새로운 사회와 시대에 대

한 희망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판소리는 모든 계층이 두루 즐기는 한국의 전통예술로서 판소리를 통해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서로의 생각을 조정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조절과 통합의 기능도 담당하였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판소리는 다양한 전통예술로부터 필요한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개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표현 가능성을 최대치로 발휘한 민족적 표현 방식으로 인류 보편적 문제점에 접근하는 예술로 승화시켜 민족문화의 전통예술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얼마 전 LA 한인타운의 한 한식당에 60여 명의 동문들이 모였다. 생일을 맞아 마련된 자리였지만, 참석 인원만큼은 웬만한 동창회 행사 못지않았다. 그 주인공은 임낙균(약대 64·사진)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60년대 학번으로는 처음이자 최연소 회장을 지낸 분이다. 그날의 초대장은 조금 남달랐다. "화환이나 축의금은 절대 사절.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대신 돌아가실 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당부에 혹시나 싶어 봉투를 챙겨간 사람들도 막상 현장을 보고는 머쓱해졌다.

임 동문은 평소 자신을 '쓰죽회'골수 회원이라고 소개한다. '쓰고 죽자'의 줄임말로, 주변에서는 그를 '쓰 회장'이라 부른다. 그는 실제로 매년 1만 달러씩을 모교 서울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더 살면 10만 달러, 20년 더 살면 20만 달러가 추가로 모교에 간다"는 그의 말에는 기부가 아니라 '삶의 계획'이 담겨 있다.

'쓰죽회'를 영어로 옮기면 'Die Broke'. 말 그대로 '빈털터리로 죽는다'는 뜻이다. 25년 전 미국에서 한 재무설계사가 이와 같은 제목의 책을 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18주 동안 오르며, 돈의 쓰임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제시한 책이었다.

저자는 스티븐 폴란(Stephen Pollan). 부동산 개발과 벤처 투자로 큰돈을 벌었던 그는 어느 날 말기 폐암 진단을 받는다.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몰두해

쓰고 떠나는 삶의 미학

정작 써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젠장, 뭐 이런 삶이 다 있어.'

그런데 뜻밖에 반전이 일어난다. 세컨드 오피니언 결과 '오진'이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것'이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였다. 그 경험이 바로 '다이브로크'라는 개념을 낳았다.

사실 이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도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다이브로크'는 그보다 한층 적극적이다. 여차피 빈손으로 갈 인생이라면, 미련 없이 쓰고 가라는 뜻이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세계 최고 부자들조차 이미 '다이브로크'를 실천 중이다. 두 사람은 사후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비영리 자선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결국 그들의 부는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남는다.

요즘 들어 '쓰고 죽자'는 철학에 공감하는 7080세대들이 늘고 있다. '쓰죽

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만들어 평생 쌓은 재산과 재능을 나누며 인생의 후반전을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다. '쓰는 것'은 단지 돈을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일이며,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삶의 방식이다.

12월은 송년 모임이 줄을 잇는 계절이다. 100세 시대를 사는 지금, 물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함께 웃고 나눌 친구와 가족, 그리고 신뢰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자린고비나 스쿠루지라는 딱지가 붙는다면 누가 걸을 내어주겠는가.

돈은 결국 '쓰기 위해 버는 것'이다. 번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평생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임낙균 동문은 그것을 이미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에게 '다이브로크'는 단순한 재테크 철학이 아니라, 나눔으로 완성되는 인생의 품격이다.

<편집고문>

젠슨 황 CEO가 말하는 AI가 바꿀 미래는...

간 AI가 바꿀 미래를 전했다. 엔비디아는 원래 1999년 게임용 그래픽카드 GPU를 출시했지만 현재는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했다. 엔비디아의 GPU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뛰어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수 자원으로 부상했다. 젠슨 황 CEO는 특별 연설에서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산업혁명이며, 한국은 이 전환의 한가운데 있는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전 세계에 수많은 AI 공장(AI Factory)이 세워질 것이고 전기와 인터넷처럼, AI도 각 나라의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젠슨 황의 연설은 AI가 바꿀 미래를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내용으로 서울대 미주동창회 각 지부 동문 단독방에 공유되면서 동문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젠슨 황의 연설 중 AI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요약 소개한다.

“로봇이 로봇 만드는 거대한 로봇 공장 탄생할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챗봇(chatbot)’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ChatGPT가 인공지능 혁신을 이끌었고, AI를 모든 사람의 손안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여러분이 AI와 함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감을 잡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과거의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수작업형(hand-coded)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훈련해,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모델(Model)을 학습시킵니다.

인공지능은 GPU 위에서 작동합니다. 반면 사람이 직접 코드를 작성한 소프트웨어는 CPU에서 실행됩니다. 지금 컴퓨팅의 모든 계층—에너지 칩, 인프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AI 모델, 애플리케이션—이 완전히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산업은 지난 60년 동안 거의 동일한 구조를 유지해 왔지만, 이제 AI와 가속 컴퓨팅으로 인해 컴퓨팅 스택의 모든 계층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조 달러 규모 시스템들이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AI에 대해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점은, ‘트랜스포머(Transfomers)’ 모델이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것이 AI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언어(Language)를 다루는 모델도 있지만 정보의 종류는 훨씬 다양합니다. 화학(Chemistry), 단백질(Proteins), 물리학(Physics), 양자물리(Quantum Physics) 등 다양한 과학 분야를 위한 AI가 있으며, 로봇공학(Robotics)처럼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AI도 존재합니다. AI는 매우 넓고 방대하며, 세상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기 위해 필요한 알고리즘의 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ChatGPT와 같은 챗봇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다양한 AI 모델들이 함께 존재하며 수많은 산업과 응용 분야를 혁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가 전 세계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능(intelligence)’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은 없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찰입니다.

과거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는 인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0월31일 경주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마지막 특별 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AI는 산업혁명, 도구를 넘어 일을 수행 한국은 AI 시대 성공 위한 요건 모두 갖춰

이 사용하는 도구(tool)였습니다. 엑셀(Excel), 웹 브라우저(Web Browser), 파워포인트(PowerPoint) 모두 도구입니다. 그러나 AI는 ‘도구’가 아니라 ‘일(work)’을 수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AI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 산업—즉 도구 산업, 나아가 IT 산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인공지능은 기존 소프트웨어와 달리 ‘공장(factory)’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를 위해 GPU 기반 AI 슈퍼컴퓨터(AI Supercomputer)를 구축하며, 이것이 바로 모두가 사용할 ‘지능(intelligence)’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는 엄청난 수의 AI 공장(AI Factories)이 생겨날 것입니다.

AI는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산업에 통합될 것이기 때문에, AI 인프라스트럭처(AI Infrastructure)는 전 세계 각국에서 구축될 것입니다. 전기(Electricity), 인터넷(Internet)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각 나라가 자국 내에 AI 공장을 세우는 시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이며, 이 기술이 모든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AI는 하나의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입니다.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구조를 완전히 바꾸며, 도구가 아니라 ‘일하는 소프트웨어’로서 거대한 산업을 직접 다루고, 또한 ‘공장’을 필요로 합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창업주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이 15년 만에 공식 방한해 지난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 스페셜 세션 무대에 올라 21분

간 AI가 바꿀 미래를 전했다. 엔비디아는 원래 1999년 게임용 그래픽카드 GPU를 출시했지만 현재는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했다. 엔비디아의 GPU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뛰어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수 자원으로 부상했다.

젠슨 황 CEO는 특별 연설에서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산업혁명이며, 한국은 이 전환의 한가운데 있는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전 세계에 수많은 AI 공장(AI Factory)이 세워질 것이고 전기와 인터넷처럼, AI도 각 나라의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젠슨 황의 연설은 AI가 바꿀 미래를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내용으로 서울대 미주동창회 각 지부 동문 단독방에 공유되면서 동문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젠슨 황의 연설 중 AI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요약 소개한다.

퍼, DRAM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공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더 많은 ‘AI 공장(AI factories)’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저는 지금이 한국에게 매우 특별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AI 시대에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갖춘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전문성(software expertise).

둘째, 깊은 기술력과 과학 역량(deep technical and science capability).

셋째, 제조 역량(manufacturing capability).

이 세 가지—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술, 제조 역량—가 결합하면 한국은 로봇공학(Robotics) 분야에서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물리적 인공지능(Physical AI)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전 세계에서 다양한 로봇공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Figure와 협력한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ics), Caterpillar와의 산업용 로봇공학 전환, Agility의 물류 로봇(Logistics Robots), Johnson & Johnson의 외과 수술 로봇(Surgical Robots) 등이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산업 현장 전반에 로봇 시스템을 적용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체 공장이 로봇으로 작동하는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사 AI 슈퍼컴퓨터 공장을 미국에 건설 중이며, 전 세계 기술 기업들과 협력해 로봇형 공장(Robotic Factory)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장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로봇(Giant Robot)이며, 그 안에서 로봇과 인간이 협력해 작업합니다.

이 로봇 공장들은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s) 같은 로봇형 제품(Robotic Products)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즉, 로봇이 로봇을 지휘하고, 로봇이 로봇 제품을 만드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미래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놀라운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최신 엔비디아 시스템이 바로 ‘Grace Blackwell’입니다. 무게 2톤, 약 150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거대한 GPU로, 1만 2,000와트의 전력을 사용하며 놀라운 속도로 토큰(token)—즉 지능—을 생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 GPU를 여전히 게임용 그래픽카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랙(rack)에 들어가는 거대한 슈퍼컴퓨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지난 6개월 간의 성장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었습니다. AI는 이제 한 번도 훈련된 적 없는 문제도 스스로 추론(reason), 사고(thinking),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세 가지 스케일링 법칙(three scaling laws)’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르치듯 AI에게 정보를 기억하고 암기하도록 가르칩니다. 사후 학습(post-training)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수행하는 법과 추론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추론(inference) 단계에서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생각하며’ 대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AI의 답변 품질은 놀라울 만큼 향상되었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AI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AI는 드디어 수익성을 갖게 되었고, 수익성이 생기면 우리는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합니다. 반도체 칩, 웨이

원고모집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외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contact@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재정자립기금 \$1,683,000 (as of 10.25.2025)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 뉴욕-조상근 (법대 69)
- 워싱턴주-故고광선 (공대 57)
- 필라델피아-신의석 (공대 53)

플래티넘이사 (\$50,000 이상)

- 조지아-주중광 (약대 60)
- 조지아-허지영 (문리대 66)

골드이사 (\$10,000 이상)

- 워싱턴주-양남주 (명예이사)
- 남가주-김경숙 (간호대 68)
- 남가주-김일영 (의대 65)
- 남가주-김보연 (간호대 63)
- 남가주-노명호 (공대 61)
- 남가주-박중수 (수의 58)
- 남가주-박창규 (약대 59)
- 남가주-서동영 (사대 60)
- 남가주-서치원 (공대 69)
- 남가주-성낙호 (치대 63)
- 남가주-심화섭 (약대 61)
- 남가주-이기준 (법대 54)
- 남가주-이병준 (상대 55)
- 남가주-이홍표 (의대 58)
- 남가주-벤자민 홍 (문리대 53)
- 남가주-하기환 (공대 66)
- 남가주-한귀희 (미대 68)
- 남가주-한홍택 (공대 60)
- 남가주-홍수웅 (의대 59)
- 남가주-홍훈정 (음대 70)
- 남가주-정상진 (상대 59)
- 뉴욕-강에드워드 (사대 60)
- 뉴욕-오인석 (법대 58)
- 뉴욕-이정자 (간호대 59)
- 뉴잉글랜드-박영철 (농대 64)
- 뉴잉글랜드-오세경 (약대 61)
- 뉴잉글랜드-윤상래 (수의대 62)
- 뉴잉글랜드-정선주 (간호 68)
- 뉴잉글랜드-최홍균 (공대 69)
- 미시간-박용화 (의대 58)
- 북가주-김정희 (음대 56)
- 북가주-민병곤 (공대 65)
- 북가주-전혜경 (문리대 67)

- 샌디에고-이민기 (공대 64)
- 시카고-이용락 (공대 48)
- 시카고-조규승 (문리대 72)
- 워싱턴주-김재훈 (공대 72)
- 워싱턴DC-이태영 (법대 60)
- 조지아-김현희 (간호대 59)
- 커네티컷-김창수 (의대 54)
- 필라델피아-김영우 (공대 55)
- 필라델피아-손재욱 (가정대 77)
- 필라델피아-이만택 (의대 52)
- 하트랜드-이상강 (의대 70)
- 하트랜드-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 이상)

- 남가주- 김원경 (약대 59)
- 남가주-권봉성 (문리대 64)
- 남가주-故김병연 (공대 68)
- 남가주-박인창 (농대 65)
- 남가주-故이종도 (공대 66)
- 남가주-이종묘 (간호대 69)
- 남가주-이호진 (간호대 74)
- 남가주-정임현 (간호대 72)
- 남가주-정재훈 (공대 64)
- 뉴욕-김현중 (공대 63)
- 미네소타-황효숙 (사대 65)
- 북가주-강재호 (상대 57)
- 북가주-박순희 (의대 60)
- 북가주-남광순 (음대 64)
- 북가주-차재철 (의대 62)
- 루지애나-강영빈 (문리대 58)
- 워싱턴 DC-남옥현 (경영대 84)
- 워싱턴DC-배성호 (의대 65)
- 워싱턴DC-최재귀 (미대 63)
- 조지아-김경숙 (사대 64)
- 조지아-김태형 (의대 57)
- 조지아-임수암 (공대 62)

종신이사 (\$3,000 이상)

- 남가주-故노재성 (법대 58)
- 故서영석 (의대 55)
- 故오재인 (치대 33)
- 故윤낙승 (의대 60)
- 강신용 (사대 73)

- 곽용길 (문리대 59)
- 권기홍 (의대 60)
- 김광은 (음대 56)
- 김기형 (상대 75)
- 김대중 (의대 70)
- 김동훈 (의대 71)
- 김보연 (간호대 63)
- 김상찬 (문리대 65)
- 김성호 (법대 64)
- 김수영 (사대 57)
- 김자성 (의대 79)
- 김재영 (농대 62)
- 김정빈 (공대 66)
- 나두섭 (의대 66)
- 나용화 (생과대 79)
- 류재풍 (법대 60)
- 박명근 (상대 63)
- 박용필 (문리대 66)
- 박원준 (공대 53)
- 박윤수 (문리대 48)
- 방명진 (공대 73)
- 백길영 (의대 58)
- 백만일 (공대 64)
- 신건호 (법대 53)
- 신경자 (사대 60)
- 신영찬 (의대 63)
- 심상은 (상대 54)
- 안병일 (의대 63)
- 故오홍조 (치대 56)
- 이근원 (공대 67)
- 이명선 (상대 58)
- 이성숙 (공대 56)
- 이세열 (사대 57)
- 이승훈 (상대 74)
- 이채진 (문리대 55)
- 이청광 (상대 61)
- 임낙균 (약대 64)
- 임용오 (의대 57)
- 전경배 (의대 69)
- 전희택 (의대 58)
- 정균희 (의대 64)
- 정희영 (치대 58)
- 정동구 (공대 57)
- 정철룡 (의대 61)
- 제영혜 (가정대 71)
- 조용원 (문리대 66)

- 조한원 (의대 57)
- 차민영 (의대 76)
- 차종환 (사대 54)
- 한효동 (공대 58)
- 홍성선 (약대 72)
- 홍종화 (약대 74)
- 황해룡 (공대 52)

뉴욕

- 故김광호 (문리대 62)
- 故한창섭 (문리대 57)
- 故김중률 (사대 51)
- 고애자 (음대 57)
- 권영국 (상대 60)
- 김승호 (공대 71)
- 김영용 (치대 55)
- 김한중 (의대 56)
- 김해암 (의대 52)
- 배정희 (사대 54)
- 서영숙 (간호대 67)
- 석창호 (의대 66)
- 손진태 (약대 67)
- 신응남 (농대 70)
- 오용호 (의대 66)
- 윤인숙 (간호대 63)
- 윤종숙 (약대 66)
- 이강홍 (상대 60)
- 이기영 (농대 70)
- 이대영 (문리대 64)
- 이영재 (상대 58)
- 이재덕 (법대 60)
- 이재량 (상대 61)
- 이전구 (농대 60)
- 이준행 (공대 48)
- 이태호 (상대 58)
- 조대일 (사대 53)
- 최수용 (상대 55)
- 최영태 (문리대 67)
- 최한용 (농대 58)
- 최형무 (법대 69)
- 추재욱 (의대 57)
- 한태진 (의대 58)
- 허선행 (의대 58)

- 故박경민 (의대 53)
- 김광수 (문리대 73)
- 고종성 (사대 75)
- 김문소 (수의대 61)
- 김용구 (공대 66)
- 오세경 (약대 61)
- 윤선홍 (치대 64)
- 이의인 (공대 68)
- 전신의 (문리대 57)
- 정정욱 (의대 60)
- 정태영 (문리대 71)
- 조만연 (상대 58)
- 홍지복 (간호대 70)

- 전신의 (문리대 57)
- 정정욱 (의대 60)
- 정태영 (문리대 71)
- 조만연 (상대 58)
- 홍지복 (간호대 70)

미네소타

- 김권식 (공대 61)
- 김태환 (의대 58)
- 남세현 (공대 67)
- 문성인 (공대 88)
- 박현아 (공대 88)
- 변우진 (문리대 81)
- 송창원 (문리대 53)
- 조형준 (문리대 62)

미시간

- 故남상용 (공대 52)
- 故정태 (의대 57)
- 장병진 (공대 61)

북가주

- 박종성 (법대 53)
- 박진영 (공대 66)
- 손석보 (공대 68)
- 윤정욱 (약대 50)
- 최경선 (농대 65)
- 한만섭 (공대 49)
- 황동하 (의대 65)

샌디에고

- 임천빈 (문리대 61)
- 유현주 (문리대 65)
- 진성호 (공대 64)

시카고

- 故이운모 (농대 57)
- 故강영국 (수의대 67)

- 소진문 (치대 58)
- 심상구 (상대 63)
- 이재희 (치대 67)
- 장윤일 (공대 60)
- 조봉완 (법대 53)
- 故최의필 (의대 53)
- 한재은 (의대 59)

알래스카

- 윤제중 (농대 55)

오레곤

- 김상순 (상대 67)
- 박희진 (농대 78)
- 이은상 (상대 52)

오하이오

- 김용현 (경영 66)
-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 故김영일 (공대 53)
- 이명자 (간호대 74)
- 이희백 (의대 55)
- 임현민 (공대 84)

워싱턴 DC

- 故방은호 (약대 43)
- 강연식 (사대 58)
- 공순옥 (간호대 66)
- 권기현 (사대 53)
- 민홍기 (문리대 61)
- 박평일 (농대 69)
- 故서휘열 (의대 57)
- 오인환 (문리대 63)
- 이내원 (사대 58)
- 이선구 (문리대 65)
- 이윤주 (상대 63)
- 최지원 (의대 61)

조지아

- 김용건 (문리대 48)
- 석호태 (공대 85)
- 성성모 (사대 67)
- 이종석 (의대 54)

커네티컷

- 故유시영 (문리대 68)

텍사스

- 박태우 (공대 64)
- 이광연 (공대 60)
- 조시호 (문리대 59)

플로리다

- 김중권 (의대 63)
- 임필순 (의대 54)

필라델피아

- 고병은 (문리대 55)
- 김현영 (수의대 58)
- 서중민 (공대 64)
- 신성식 (공대 56)
- 주기목 (수의대 68)

하와이

- 故최경윤 (사대 51)

하틀랜드

- 故김명자 (문리대 62)
- 김시근 (공대 72)
- 배규영 (사대 68)
- 오명순 (가정대 69)
- 이교락 (의대 53)

휴스턴

- 박진섭 (의대 67)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동창회비 | 1차: 2025.7.1~2026.6.30, 2차: 2026.7.1~2027.6.30

<p>남가주</p> <p>강경수 (법58) 강동순 (법59) 강호석 (상81) 김경숙 (생과70) 김경자 (미60) 김광주 (문69) 김상순 (상67) 김수영 (사57) 김영덕 (법58) 김영배 (미61) 김택수 (의57) 김평우 (법63) 나승욱 (문59) 노명호 (공61) 리준무 (음65) 문병길 (문61) 박은숙 (미62) 박인수 (농64) 박호현 (의52) 벤자민홍 (문53) 손학식 (공61) 송태진 (공79) 신건호 (법53) 심계식 (사63) 양은석 (음70) 양태준 (상56) 오선웅 (의63) 윤석철 (상60) 이방기 (농59)</p>	<p>이범식 (공61) 이상강 (의70) 이서희 (법70) 이종묘 (간69) 이진영 (의65) 이채진 (문55) 임동규 (미57) 장운희 (사54) 장원경 (미73) 정동주 (생72) 정명자 (사56) 정 황 (공64) 주정래 (상65) 천동우 (공63) 채규환 (법69) 한홍택 (공60) 함승욱 (간호73) 홍선례 (음70) 황건홍 (공55)</p> <p>뉴욕</p> <p>강에드워드 (사60) 고애자 (음57) 권문웅 (미61) 권영국 (상60) 권정덕 (의58) 김광현 (미57) 김복영 (간69) 김용연 (문63) 김은희 (간71)</p>	<p>김정희 (간69) 김종원 (사58) 민인기 (의67) 박건이 (공60) 박경희 (음57) 박은규 (약72) 변건웅 (공65) 서병선 (음65) 석창호 (의66) 선종철 (의57) 손진태 (약67) 신응남 (농70) 양명자 (사63) 양성택 (상66) 윤영섭 (의57) 이문봉 (미76) 이상근 (경영84) 이상무 (의56) 이영범 (공71) 이재원 (상58) 이재진 (의59) 이홍우 (공50) 함중금 (간66) 조남천 (사59) 조태환 (상56) 진봉일 (공50) 최준희 (의58) 최형무 (법69) 허영자 (약63)</p>	<p>뉴잉글랜드</p> <p>김형범 (문57) 이금하 (문69) 박종건 (의56) 윤상래 (수의62) 윤영자 (미60)</p> <p>미네소타</p> <p>문성인 (수의62) 주한수 (수의62) 황호숙 (사65)</p> <p>미시간</p> <p>오동환 (의65) 주명순 (간64) 최병두 (의52) 하계현 (공64)</p> <p>북가주</p> <p>강재호 (상57) 민병근 (공65) 박서규 (법56) 신규영 (공64) 전병련 (공54) 정춘임 (간67) 위창호 (의67) 최경선 (농65) 한상봉 (수의67) 홍병익 (공68) 황동하 (의65) 황만익 (사59)</p>	<p>북텍사스</p> <p>송요한 (문73) 최취기 (공61)</p> <p>샌디에고</p> <p>김인철 (약70) 이문상 (공62)</p> <p>시카고</p> <p>김병윤 (문65) 김성일 (공68) 김용환 (공71) 서상현 (의65) 소진문 (치58) 윤경순 (사61) 이덕수 (문58) 이동균 (공75) 이준수 (공76) 장윤일 (공60) 최희수 (문67) 한의일 (공62) 홍청일 (약57) 황치룡 (문65)</p> <p>오레곤</p> <p>한국남 (공57)</p> <p>오하이오</p> <p>유덕영 (공57) 정갑희</p>	<p>워싱턴주</p> <p>김인배 (수의59) 김재훈 (공72) 윤석진 (문64) 이길승 (상57) 이정관 (농83) 이회백 (의55) 정영자 (사60) 최준한 (농58)</p> <p>워싱턴 DC</p> <p>권철수 (의68) 김내도 (공62) 김응환 (치88) 나연수 (사54) 박상근 (법75) 박일영 (문59) 박홍우 (문61) 서윤석 (의62) 석균범 (문61) 오인환 (문63) 우제형 (상54) 이내원 (사58) 이선구 (문65) 이연주 (치88) 이준영 (치74) 정문필 (사56) 정원자 (농62) 최재귀 (미63) 홍영석 (공58)</p>	<p>조지아</p> <p>서광모 (공65) 성성모 (사67) 이종석 (의54) 임수암 (공62) 최종진 (의63)</p> <p>중부텍사스</p> <p>이학호 (수의59)</p> <p>캐롤라이나</p> <p>이종영 (음58)</p> <p>테네시</p> <p>김경덕 (공75)</p> <p>권준희 (가정87) 서갑식 (공70)</p> <p>텍사스</p> <p>천양곡 (의63) 황명규 (공61)</p> <p>플로리다</p> <p>오석일 (의64) 이만택 (의52) 이민우 (의61)</p>	<p>필라델피아</p> <p>고석규 (치65) 김국간 (치64) 김영남 (의61) 김현영 (수의58) 서중민 (공64) 손재욱 (가정77) 신성식 (공56) 오진석 (치56) 윤정나 (음57) 이규호 (공56) 지흥민 (수61) 최종무 (상63)</p> <p>하틀랜드</p> <p>정민재 (농70)</p> <p>하와이</p> <p>이재형 (수의61)</p> <p>휴스턴</p> <p>이길영 (문59) 진기주 (상60) 하재청 (문67)</p>
---	---	---	---	---	--	---	--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분담금 | 2025.7.1~

<p>일반후원금</p> <p>남가주</p> <p>김상순 (상67) 300 김영배 (미61) 200 윤석철 (상60) 2,000 양은석 (음70) 200 이범식 (공61) 200 이병준 (상55) 10,000 정임현 (간72) 1,000</p> <p>뉴욕</p> <p>강에드워드 (사60) 700 리준무 (음65) 200 신응남 (농70) 1,500 조남천 (사59) 300</p> <p>뉴잉글랜드</p> <p>오세경 (약61) 3,000 윤상래 (수의62) 1,000</p>	<p>미네소타</p> <p>강순건 (문57) 1,000 김권식 (공61) 50,000</p> <p>미시간</p> <p>오동환 (의65) 200</p> <p>북가주</p> <p>황만익 (사59) 200</p> <p>시카고</p> <p>최희수 (문67) 100 서상현 (의65) 100</p> <p>오하이오</p> <p>정갑희 (??) 300</p> <p>조지아</p> <p>이종석 (의54) 100</p>	<p>워싱턴 DC</p> <p>권철수 (의68) 200 이선구 (문65) 200 최재귀 (미63) 1,000</p> <p>테네시</p> <p>김경덕 (공75) 100</p> <p>필라델피아</p> <p>손재욱 (가정77) 500 지부분담금 1,000</p> <p>휴스턴</p> <p>진기주 (상60) 1,000</p>	<p>장학기금</p> <p>관악연대 후원</p> <p>송태진 (공79) 5,000</p> <p>커네티컷 지부 후원</p> <p>故유시영 (문68) 10,000</p> <p>Brain Network 후원</p> <p>오인환 (문63) 200</p> <p>워싱턴 DC</p> <p>이경애 (문58) 10,000</p> <p>테네시</p> <p>권준희 (가정87) 100</p> <p>플로리다</p> <p>오석일 (의64) 200</p>
---	---	---	--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달 2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uaa.org

남가주 |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292

AAMKO Consulting Co.
 강산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os Angeles,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os Angeles,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os Angeles,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reet
 Los Angeles, CA 90010

Kenneth G. Yum, CPA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
 Diamond Bar, CA 91765

기계/기술/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900-1000
 4184 E. Conant Street
 Long Beach, CA 90808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1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모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T: 213-380-5060 (LA, CA)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siloamchung@gmail.com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os Angeles, CA 90004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의료/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의료/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nu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nu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운송/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
 Tustin, CA 92780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ree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Law Offices E. PETER SHIN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 F: 718-463-6789
 35-15 159th Street.
 Flushing, New York 11358
 petershinesq@gmail.com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익규 (상대 82)
 T: 201-978-7055
 120 Sylvan Ave #303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
 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oa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ree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haeahm@aol.com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nu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nue
 Englewood,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reet
 Woodside, NY 11377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의료/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 MD, VA, MN

기계/기술/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EVS, Inc.
김관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재정/보험/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패밀리 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Wealthy & Wise Family Office
이태영(법대60, 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 한국법인 대표)
T: 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 Seoul Korea | Honolulu HI

조지아
건축
Archipelago Construction LLC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oad, Butord GA 30519

의료
Abbott Animal Hospital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encevilla Hwy, Lilburn, GA 30345

H1C(Health 1 Care) / 김창석내과
김창석 (의대 73)
T: 770-497-4188
10710 Medlock Bridge Rd, Ste 200
Johns Creek, GA 30097

필라델피아 |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텍사스
UNIFAITH Co
최성호 (문리대 58)
T: 281-269-6176
4260 Asteroid Ct. Houston Texas 77068
unifaith@hotmail.com

뉴잉글랜드
URI
이강원 (공대 66)
T: 401-874-2695
2 E. Alumni Ave. Kingston, RI 02881
leekw@uri.edu



- SNUAA Forum
- Entrepreneurship Network
- SNUAA Market

우리 동창회는 동문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Platform을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contact@snuaa.org

ADVERTISE WITH U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 200 <input type="checkbox"/> \$ 500 <input type="checkbox"/> \$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7/2025~6/2026, 1년) <input type="checkbox"/> \$100 (7/2026~6/2027, 1년) <input type="checkbox"/> \$200 (7/2025~6/2027, 2년)	<input type="checkbox"/> \$ 3,000 <input type="checkbox"/> \$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50,000 플래티넘 <input type="checkbox"/> \$100,000 이상, 다이아몬드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1,000 <input type="checkbox"/> 1/2 Size \$ 500 <input type="checkbox"/> 1/4 Size \$ 300 <input type="checkbox"/> 웹사이트(1년) \$ 500	<input type="checkbox"/> SNUAA 장학후원 <input type="checkbox"/>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관악연대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한국 이름 _____ 영어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현주소 _____	단과대 _____ 전화번호 _____	학번 (입학년도) _____ 지부 _____
업소록 광고비		업소명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5/7~2026/6, 1년) *2026년도 업소록 광고를 원하시는 동문께서는 12월 20일까지 광고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광고는 12월까지만 게재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름 _____ 단과대 _____ 업소 주소 _____	학번 (입학년도) _____ 지부 _____ 업소 전화번호 _____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501(c)(3) 비영리단체로,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제18대 서울대 미주동창회

회장 황효숙(사)

상임고문: 송창원(문), 김권식(공), 신학철(공)
 고문: 한홍택(공) IT 담당
 이희운(농) 지속가능 발전기획 담당
 이준수(공) 조직관리 담당
 신용남(농) 법률 담당
 박평일(농) 친선 담당
 오인환(문) 전략개발 담당
 김태환(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II 의학 담당
 문성인(공) 지부지원 담당
 주한수(수) 특별행사 담당

차기회장 박상근(법)

명예회장 이상강(의)

역대 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용남(농), 노명호(공)

집행부

사무총장: 박현아(공)
 총무국장: 임동근(경제)
 재무국장: 손창수(상)
 섭외광고국장: 홍선례(음)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발행인: 황효숙(사)
 편집고문: 박용필(문)
 편집장: 신복례(인문)
 편집디자인: 오은아
 편집위원:
 김정필(공), 정태영(문), 이준수(공),
 한정희(미), 최승희(사회), 최화진(음),
 문성인(공), 김량국(사), 이춘우(자연대),
 정해원(자연대), 백승아(자유전공)

지속가능 발전기획 위원회

위원장: 이희운(농)
 위원: 박현아(공), 강경철(공)

브레인 네트워크

국장: 변정민(공)
 SNU 포럼 위원회: 위원장 김재훈(공)
 Entrepreneurship 네트워크 위원장:
 김량국(사)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신용남(농), 이명자(간),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김광수(자), 문성인(공)

회칙위원회

위원장: 이준수(공)

감사

김영석(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651) 308-0796 | 이메일 contact@snuua.org |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미주동창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5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ua.org

남加州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채규환(법대69) T: (818) 489-7892
 Kchae100@yahoo.com
 차기 양수진(간호대80) T: (714) 335-2148
 회장 sujinyang2011@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송태영(자연대84)
 T: (778) 866-8312
 chris.van.bc@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70)
 T: (403) 617-7585
 MonicaWshaw.ca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문성인(공대88)
 T: (952) 250-3500
 msungi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
 이광진(공대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북加州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대79) T: (408) 464-4502
 beomsupkim@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78)
 T: (503) 648-0775
 hjpark@flonomix.com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55)
 T: (907) 223-0887
 jaejoon@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원덕수(공대건축학과72)
 T: (617) 921-6798
 douglasdwohn@g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정성일(공대86) T: (301) 395-7285
 jeong05@gmail.com
 차기 이동균(공대75) T: (847)644-4807
 회장 dlee1917@yahoo.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박상호(치대80) T: (516) 776-0449
 nomacast@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정관(농대83) T: (425) 998-4150
 Jklee234@yahoo.com

오하이오주 Ohio (Jan~Dec)
 이성우(상대72) T: (614) 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대77) T: (217) 508-8711
 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85) T: (469) 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73)
 mungichoi@hotmail.com

중부 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59)
 T: (512) 290-1911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93)
 T: (734) 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최화진(음대85)
 T: (828) 242-7150
 hwajinmdma@gmail.com

뉴욕 NY/NJ (Jul~Jun)
 김병순(사회대82) T: (703) 407-4928
 Kbs8717@g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남옥현(경영대84) T: (703) 898-6429
 minamusa@yahoo.com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91) T: (781) 812-8778
 shparkdream@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김영석(음대74) T: (215) 287-3939
 imtenor@hotmail.com

휴스턴 H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김건호(공대91)
 회장 kunhok@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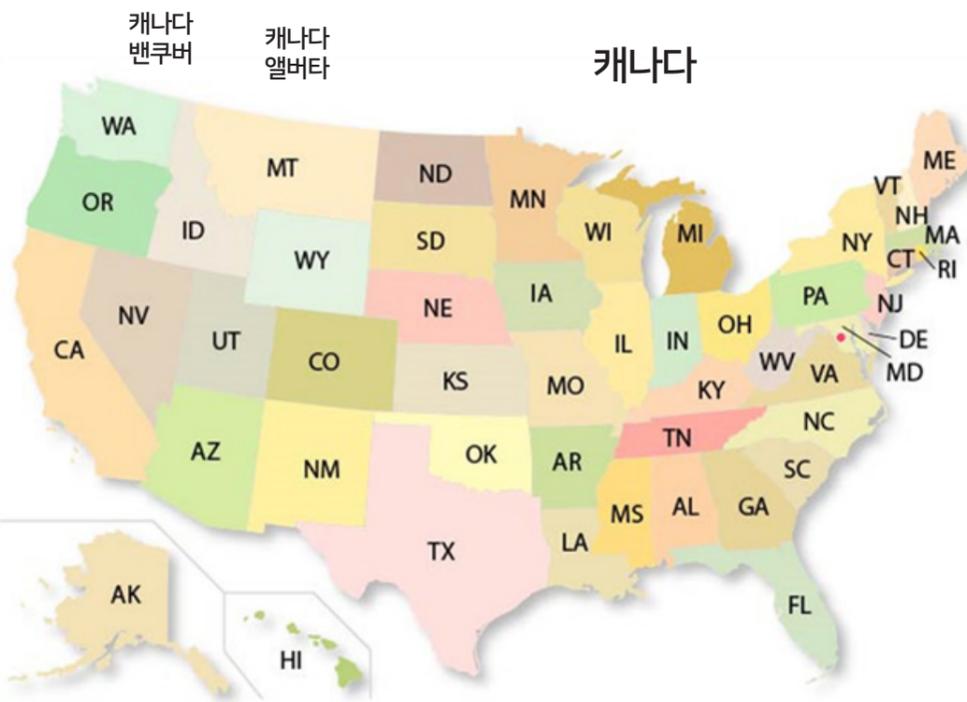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82)
 T: (602) 510-9196
 snuarizona@gmail.com

하틀랜드 IA/MO/NE/AR/OK (Jan~Dec)
 이주현(미대92)
 T: (913) 220-3021
 June.cho@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65)
 T: (561) 962-5185
 yuhn@fau.edu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78) T: (417) 277-1636
 sinho.jung@duke.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





건강한 최고의 식탁을 한남체인이 책임지겠습니다

가장 신선하고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만 품질이 좋지 않으면 절대 들이지 않고
신선한 제품으로만 전해드리기 위해 오늘도 한남체인은 매일매일 달리겠습니다

하기환 (공대 66)



Los Angeles
LA점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orrance
토랜스점
(310) 539-8899
3030 W.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Fullerton
플러튼점
(714) 736-5800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Diamond Bar
다이아몬드바점
(909) 839-1121
21080 W. Golden Springs Dr.
Walnut, CA 91789

La Palma
라팔마점
(562) 924-7422
4951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3

Torrance(Del Amo)
토랜스 델라모점
(424) 955-1234
21305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New Jersey
뉴저지점
(201) 224-0036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OUR SERVICES

- PARKING
- PLANNING
- ENGINEERING
- DESIGN
- RESTORATION
- PROJECT MANAGEMENT



BlueOne Waterpark Mixed-Use Parking Garage, Gyeongju City, Korea

PHILADELPHIA | NEW BRUNSWICK | ATLANTA | MIAMI



Princeton University Meadows Garage, Princeton, NJ



일주년에 당신을 생각하며...

가자하면 일어나서 벌써 앞장섰지요
 보이면 벌써 달려가서 대화를 하고 있었지요
 죽음이 보이면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지요
 사람이 보이면 심장과 시간을 언제든지 내 주었지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주어진 십자가를 달갑게 짊어지고
 달주하던 당신, 그래서 내게 준 십자가도 가볍게 만들어 준 당신을 그리며
 오늘도 밝은 새 날과 새 소망을 만납니다.

-손재옥 드림



LG HQ Parking Garage, Englewood, NJ



손재옥 (가정대 77) | EXECUTIVE CHAIRMAN

JHAAHS@THA-CONSULTING.COM | (267) 736-2992